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백혜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노인의
인생회고 및 자기표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민지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노인의
인생회고 및 자기표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백혜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민지

인 준 서

김민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관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 노인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인생회고와 자기표현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S재활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뇌졸중 노인환자 2명으로 선정하였고, 실험은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 동안, 총 12회기에 걸쳐 창작관소리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매주 2회, 회기 당 40분씩 개별 치료로 진행되었고 결과분석에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319개의 의미단위가 추출되었고, 최종적으로 ‘회고 속 사실 및 의미전달의 경험’, ‘생각이나 느낌 및 감정전달의 경험’, ‘의성어 및 의태어와 감탄사를 통한 경험’, ‘묘사(描寫)또는 모사(模寫)를 통한 경험’, ‘음악을 통한 경험’, ‘추임새를 통한 경험’, ‘신체동작을 통한 경험’, ‘표정 및 시선을 통한 경험’의 8개의 구성요소 및 22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창작관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한 경험은 5가지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의성어 및 의태어와 감탄사를 통한 경험(‘아니리’, ‘소리’). 둘째, 묘사(描寫)또는 모사(模寫)를 통한 경험(‘아니리’). 셋째, ‘이야기’와 ‘음악’을 통한 경험(‘아니리’, ‘소리’). 넷째, ‘추임새’를 통한 경험. 다섯째, 신체동작을 통한 경험(‘발림’) 형태로 분석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나타난 자기표현은 크게 ‘언어적 표현’과 ‘음성적 표현’, ‘신체적 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뇌졸중환자의 자기표현	6
2. 음악자서전의 치료적 의미	7
1) 음악자서전	7
2) 음악자서전과 자기표현	9
3. 창작판소리	10
1) 전통판소리와 창작판소리	10
2) 창작판소리의 치료적 가치	12
3) 창작판소리의 치료적 역할과 활용	14
III. 연구방법	16
1. 현상학적 연구	16
2. 연구절차	18
1) 연구 대상자 선정	18
2) 연구 기간 및 절차	19
3. 음악치료 프로그램	20
1) 회기별 활동주제	20
2) 활동절차	22

4. 자료 분석	24
5. 연구윤리 및 윤리적 고려	24
1)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24
2) 연구과정에 대한 윤리적 고려	25
IV. 연구결과	26
1. 구성요소 도출 및 내용	26
2. 연구결과	47
1) 창작관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한 경험	47
2) 창작관소리와 음악자서전을 통한 자기표현의 경험	50
V. 결론 및 제언	56
1. 결론	56
2. 제언	60
참 고 문 헌	62
ABSTRACT	68
부 록	70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19
<표 2> 음악자서전 회기별 활동 주제와 활용된 창작판소리	22
<표 3>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 절차	23
<표 4>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 노인의 경험에 대한 구성요소	27
<표 5>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의미단위의 예	28
<표 6> 대상자 A의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음악자서전 활동)	53
<표 7> 대상자 B의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음악자서전 활동)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흔히 한의학에서 풍(風) 또는 중풍(中風, palsy)이라 불리는 뇌졸중(腦卒中, stroke)은 동맥이 막히거나 터지는 등의 뇌혈관과 관련되는 질환을 일컫는 명칭이다. 뇌졸중은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으로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혈관이 막힌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 반대로 터진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한다(이정열, 2014).

뇌졸중 환자의 73%는 편마비와 함께 보행장애 및 인지장애, 언어장애, 감각장애 등의 여러 후유증을 가지게 된다(김진호, 한태륜, 1995). 후유증은 신체 기능 및 통제력의 제한을 주게 되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환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게 된다. 특히, 신체적 장애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과거의 권위와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무능력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소외감, 고독감, 피해의식 및 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 자신을 더욱 위축하게 되고, 우울증을 겪게 된다(김동연, 최영주, 2003). 따라서 뇌졸중으로부터 발생하는 후유증은 심리적 문제와 연결되어 ‘뇌졸중 후 우울(Post-stroke Depression, PSD)’과 ‘뇌졸중 후 감정조절장애(Post stroke incontinence, PSEI)’ 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곧 환자의 삶을 저하시키게 된다(고미혜, 2013).

이러한 뇌졸중의 심리적 문제는 자기표현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조희영(2004)은 일반적으로 우울성향이 높은 만성질환 노인환자일수록 자기표현이 낮게 나타나고, 낮은 자기표현으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며 심리적인 문제와 자기표현의 상관성을 면밀히 보여주었다. 김동연과 최영주(2003)는 뇌졸중으로 인해 재활 및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뇌졸중 환자에 비해 우울정도가 더욱 심하고 자기표현 정도도 낮았음을 밝혀내었으며, 윤정현(2003)은 뇌졸중 노인에게 자기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되고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등 심리 및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내었다. 따라서, 자기표현을 증진시키는 치료방법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Lewinsohn, Biglan, & Zeiss, 1976),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억압하게 되고 그로인해 문제가 초래되며 자기표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표출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Wolpe, 1958).

따라서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신체적인 재활 못지않게 정서적인 지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 미술, 운동, 문학, 음악, 예술, 향기, 회상, 인생회고 등 다양한 치료적 접근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명미엽, 2007), 그 중 ‘회상(reminiscence)’은 개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기억을 되새기는 것으로, 음악치료에서도 활용되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 기억, 사건, 인물 등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1차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상’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나아가는 치료적 접근방법으로는 ‘인생회고(life review)’가 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면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삶을 조직하고 평가해보며 재구성하는 과정이 적용된다(장덕희, 이정은, 윤재섭, 2013). 우리의 인생은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Deeken, 1996; 오진탁, 2002, 재인용), 이러한 인생에 대한 회고는 한 개인의 삶의 거울이자 일생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생회고’는 과거를 회상하되 단계적으로 나아가며 과거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기억들을 평가 및 재구성해보며 수용하고 통찰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회상 및 회고와 관련되는 음악치료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희와 이드보라(2013)는 독거노인에게 트로트와 민요를 이용하여 노래회상 음

악치료를 제시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우울이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녕감이 증가하는 등 감정표출이 심리상태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밝혀내었다. 또한, 김하얀(2015)은 이야기를 활용한 회고적 음악치료가 시설노인의 삶의 질과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음악을 통한 회상은 인생회고나 자기표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음악심리치료 방법 중 ‘음악자서전(Music-Autobiography)’은 음악을 통해 인생회고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인생을 시대별 또는 주제별로 구분하고, 주제에 따라 내담자가 선호하는 음악 및 노래를 통해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추억 등을 회상하도록 유도한다(이숙, 2006). 인생의 어떠한 단계나 사건에서 있었던 일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과거 혹은 지금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노래를 선정하고 부르는 과정을 통하여 억압된 자아를 표출하며 내면을 성찰해볼 수 있게 된다(Bruscia, 1998; 최병철, 김영신, 2006, 재인용). 이는, 개인마다 개별화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래의 이점을 활용하여 회상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김유림, 2009).

특히, Bruscia(1998; 최병철, 김영신, 2006, 재인용)는 “세월이 흐르면서 노래는 우리의 삶을 증언한다. 우리에게 과거를 상기시켜 주고 현재를 고찰하게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표현하게 한다.”(p. 25) 라고 하며, 노래가 다양한 감정 세계와 내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노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및 사고 등을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것으로, 노래가 치료적인 목적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음악자서전’ 활동의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는데, 이숙(2006)과 김경희(2010)는 각각 종말기 환자와 암환자에게 제시한 음악자서전을 통해 내면의 것들을 표현하고 정리하는데 음악자서전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은정(2010)과 장지애, 김영신(2013)은 음악자서전 활동이 각각 척수손상환자들과 편마비환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밝혀냈다.

이러한 ‘음악자서전’의 이점과 더불어 뇌졸중 노인환자들이 음악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억압된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작 판소리’를 활용하여 ‘음악자서전’과 함께 연관시켜 적용해보고자 한다.

‘창작판소리’는 전통적인 판소리와 형식 및 구성요소가 동일하지만 전통적인 틀 안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의 사실과 곡조를 구성하여 부른 작품을 말한다(장효지, 2013). 창작판소리의 특징 중 음악치료적인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은 ‘소리(창)’의 창법이나 가사, 음색 표현 등을 통해 감정이입이 가능하고, ‘추임새’를 통해 내용을 지지하거나 공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아니리(사설)’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기억이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창작판소리의 특정 대목과 자신의 정서 및 기억이 유사한 자극으로 맞물리게 될 때, 정신적 혹은 정서적으로 과거의 기억 및 감정을 재경험하게 되며 활발한 연상 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이수연, 2012).

판소리 관련 음악치료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수연(2012)은 판소리의 사실 및 창법, 목소리의 음색, 고수의 북소리와 역할 등의 요소들이 감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서 및 신체반응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과거와 연관된 사고를 유발하게 하여 개인의 내면 문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판소리의 요소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정리하고 해결해 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천사(2011)는 성음 중심의 판소리 창작 음악치료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판소리 창작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도구임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소리를 음악치료로 사용한 선행연구는 그 수가 미흡한 실정므로, 실제 치료 현장에서도 민요 및 사물놀이 등의 국악 활용에 비해 판소리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치료사가 직접 판소리를 구사하며 치료중재로 활용한 연구는 더욱 찾기 힘들다.

따라서 연구자는 ‘창작판소리’와 ‘음악자서전’이 가지고 있는 ‘자기표현’ 및 ‘연상적 사고’라는 공통점을 활용하여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을 뇌졸중 노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인 ‘아니리(사설)’, ‘소리(노래)’, ‘발림(몸짓)’, ‘추임새’ 등을 통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인생회고를 경험하고, 자기표현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여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생회고 및 자기표현을 위한 치료적 중재방법으로써 창작판소리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음악치료 중재도구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을 통해 뇌졸중 노인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노인들은 음악자서전활동에서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해 어떠한 인생회고의 과정을 경험 하는가?
2.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 노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표현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뇌졸중환자의 자기표현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생활양식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의존적인 모습과 무능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소외감과 고독감, 수치심, 피해의식, 우울감,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는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게 되면서 자기표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현주, 2008).

Wolpe(1958)는 ‘자기표현’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Adler(1979; 김인자, 1991, 재인용)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자기표현’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태경(2006)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이 ‘자기표현’이라고 하며, 말 외에 몸짓, 표정 등으로도 표현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법에는 언어적인 표현 외에도 몸짓이나 말투 등의 비언어적인 방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뇌졸중 노인의 자기표현 저하를 크게 기능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뇌졸중의 후유증 중 하나인 ‘편마비’는 신체 한 쪽 근육이 운동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서(지제근, 2004) 몸이 마비되고 경직되며 발음이 잘 되지 않는 등, 갑작스러운 신체 기능의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최영주, 2001).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고자 하거나 전달하려는 것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되어 의존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수동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점차 자기표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김현주, 2008).

둘째, 심리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체기능상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신체적 기능의 상실은 좌절과 박탈을 경험하게 되고 상실과 두려움, 절망감, 우울, 불안, 고립감, 적개심, 위축감 등을 초래하여 자기표현을 저하시키게 된다(최영주, 2001). 또한,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노인들은 가족들에게 부양되기보다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자체만으로도 노인들에게는 후유증과 더불어 우울정도를 심각하게 하여 자기표현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김동연, 최영주, 2003).

2. 음악자서전의 치료적 의미

1) 음악자서전

‘음악자서전’은 음악심리치료의 방법 중 하나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음악을 통해 과거의 기억과 추억을 회상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음악과 언어를 통해 내면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것을 파악하고, 감정적 경험을 돕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대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음악을 통해 더 쉽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대상자는 과거의 감정과 기억, 추억, 그리고 현재의 감정 등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의 순간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재확인하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해보고 통찰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된다(이문정, 2006).

‘음악자서전’은 일곱 단계의 시행절차를 거치며, 단계는 ‘도입(Intro) - 설명하기(Explaining) - 이슈제시(Giving issue) - 회상하기(Reminiscing) - 음악자서전(Music-autobiography) - 감상하기(Listening) - 맺음(Extro)’의 순서로 진행된다(이문정, 2006).

먼저, ‘도입(Intro)’은 활동에 임하기 전 음악 감상을 통해 신체이완과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첫 단계이다. 긴장을 풀고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진정성 음악(sedative music)’을 감상하거나 노래한다. ‘진정성 음악’은 ‘자극성 음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이 비교적 길고 역동성이 약하며 빠르지 않은 협화음의 음악을 ‘진정성 음악(sedative music)’이라 한다. 반대로 ‘자극성 음악(stimulative music)’은 리듬이 짧고, 분리적인 특성이 있어 역동성이 강한 음악으로서 대체로 빠른 특징을 가진 음악을 말한다(Gaston, 1951; 강갑원, 1993, 재인용). 두 번째 단계로 ‘설명하기(Explaining)’는, 음악 자서전의 활동방법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이다. 활동 전의 설명은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고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언어적인 설명과 함께 활동참여에 대해 지지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끈다. 세 번째 단계인, ‘이슈제시(Giving issue)’는 활동주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치료사는 시기별 혹은 구체적인 주제별로 제시되는 주제를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로 제시하게 되고, 대상자가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너무 많은 주제를 제시하면 대상자가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로, ‘회상하기(Reminiscing)’는, 주어진 주제와 함께 관련되는 기억 및 추억을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는 단계이다. 여러 감정과 기억을 느끼며 재확인하고, 과거의 추억 및 기억과 함께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 대상자가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치료사는 언어적인 지지와 함께 ‘진정성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제공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음악자서전(Music-autobiography)’은 회상 이후 대상자가 주제 및 당시의 기억과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음악 및 노래 등을 선택하여 이야기하는 단계로서, 대상자는 선택한 노래를 통해 내면을 탐색한다(김유림, 2009). 만약 대상자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치료사는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고, 대상자가 단답형으로 응답하는 경우에는 치료사가 조심스럽게 주제와 관련되는 질문을 제시하여 음악과 기억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단계로 ‘감상하기(Listening)’는, 음악자서전 활동을 통해 선정된 음악들을 감상하거나 노래를 불러보는 등의 단계이다. 감상 후 음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감정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게 됨으로서 내면을 발견하고 표출하며 외면화해볼 수 있다. 끝으로 ‘맷음(Extro)’은, 활동의 마무리단계로서 음악자서전을 통해 돌아본 자신의 인생여정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확인하고 자신을 통찰하며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다(이문정, 2006).

2) 음악자서전과 자기표현

음악자서전 활동을 통해서 대상자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고할 수 있다. 긍정적 및 부정적 회상을 재경험 하면서 새롭게 수용하게 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음악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경험하는 느낌과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대상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장지애, 김영신, 2013). 즉, 내 삶의 이야기와 선호하는 음악을 통해 형성된 친밀감 속에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이 때 음악은 회고 속에서 경험하는 나의 감정과 느낌을 정당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자서전이 가진 회상하기,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어적 또는 음악적으로 자기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음악자서전’은 대상자가 선정하는 음악을 통해 음악 및 노래가사에 담겨있는 대상자의 감정이나 사고를 탐색하고 증진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이은정, 2011). 이는 노래가 가진 감정들과 연관될 수 있는데, 실제로 노래는 다양한 감정과 순간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Bruscia, 1998; 최병철, 김영신, 2006, 재인용), 언어와 음악의 결합이기 때문에 인지와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노래와 함께 인생회고가 이루어지는 ‘음악자서전’은 더욱 구체적인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유림, 2009).

3. 창작판소리

1) 전통판소리와 창작판소리

판소리는 국악의 한 장르로서, 구비문학이자 민족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음악과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하나의 판을 만드는 종합예술이며 ‘소리(창)’, ‘아니리(말)’, ‘발림(몸짓)’으로 이어가는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장효지, 2013). 이러한 판소리는 극적이고 서사적으로 구성된 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고(이성천, 1997), 삶이나 감정 등을 목소리를 통해 여러 창법으로 표현해내는 극음악이자 독창곡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이수연, 2012).

판소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즉흥성’과 ‘재창조’ 그리고 ‘다양한 감정 표현’이 있다. 판소리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그 틀 안에서 상황에 따라 ‘즉흥성’을 갖기도 하고, ‘상황성’이 반영되기도 하며 소리꾼의 기량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창조’되기도 한다(이수연, 2012). 또한 사람이 내는 소리인 만큼 다양한 감정을 신체나 소리 등으로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신체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표현하거나 표정 또는 소리의 음색, 창법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판소리가 문학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 그리고 극적인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유석, 2010). 판소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외래문화가 도입되면서 점차 위상을 잃어가며 쇠락 하게 되었고, 현재는 《춘향가》, 《홍보가》, 《적벽가》, 《심청가》, 《수궁가》의 5바탕만이 전통판소리의 기본적인 레퍼

토리로 전승되고 있다(김명자, 2014). 해방 이후 민족문화예술은 홀대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그와 함께 판소리는 5바탕으로 더욱 고정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연, 2007). 판소리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독자성과 우수성을 보존하며 명맥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과거에 비해 쇠퇴된 원인에는 시대를 개척하지 못한 점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사실의 어려운 한자어로 인한 이해 및 소통의 어려움, 시대성 및 관습과 가치관에 대한 비(非)공감, 장기간 소요되는 공연시간, 극장구조와 공연형태의 변화 등이 대중성 확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극복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창작판소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김명자, 2014).

‘창작판소리’란, 전통적인 판소리와 다르게 새로운 사설과 곡조로 만든 작품을 말한다(장효지, 2013).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는 새롭게 만들어진 판소리에 대해 ‘창작판소리’와 ‘신작판소리’ 등의 여러 개념들이 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창작판소리’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크게 보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5바탕을 ‘전통판소리’라고 하고, 이외의 새롭게 만들어진 판소리들을 ‘창작판소리’로 구분하는 것이다. ‘창작판소리’는 ‘전통판소리’와는 다른 새로운 곡조와 사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전통판소리’와 다르게 개인이 새롭게 창작하여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가 가진 초점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초점에는 다양한 소재가 접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종교적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박동진 명창’의 《예수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나라의 구국 영웅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박동실 명창’의 《윤봉길 열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사회적배경과 민중들의 이야기를 담은 ‘임진택 명창’의 《5월 광주》,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박애리 명창’의 《토끼와 거북이》, 치매와 가족이라는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밀착하여

풀어내는 ‘윤충일 명창’의 《황선비 치매 퇴치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창작판소리’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소재들을 주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매우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그 시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김연, 2007).

‘창작판소리’는 ‘전통판소리’의 기본적인 요소 및 특징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지만 ‘창작판소리’만의 뚜렷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의 다양성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삼으면서 ‘전통판소리’에 비해 훨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현실성과 친근감이다. 일상적인 생활이나, 유명한 영웅들의 이야기, 또는 동화까지 우리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삼기 때문에 친근감 있는 소재와 더욱 현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곧 공감대를 형성하여 ‘창작판소리’가 청중들에게, 또는 청중들이 ‘창작판소리’에 다가가기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쉬운 언어이다. ‘전통판소리’의 경우 어려운 한문어로 이루어져 있어 내용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는 반면, ‘창작판소리’는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구성되어 있어 청중들이 쉬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우종, 2007).

2) 창작판소리의 치료적 가치

판소리는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하게 연구되어 온 예술로서 판소리만이 추구할 수 있는 독특한 양식을 통해 치유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장호지(2013)는 음악과 언어의 관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점과 도구나 장소, 공간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판소리의 중요한 치료적 가치로 꼽았다. 또한, 이민성(2005)은 판소리의 ‘소리’가 주는 힘과, ‘추입새’라는 소통방식이 주는 상호작용, 그리고 ‘웃음’의 제공을 통해 판소리가 창출하는 미학(美學)으로부터 예술적인 치유력이 있음을 주

장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민성(2005)은 판소리의 치유성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요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소리’가 주는 힘이다. 목소리의 치유효능과 함께 소리가 감정과 무의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며,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 소리, 음악 등을 표현하고, 신체를 사용하며 ‘발림’을 표현하는 판소리는 노래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소리(音)’와 ‘노래(謠)’는 다른 것으로서, ‘소리’가 음을 타고 흐르는 것이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리’는 ‘노래’보다 광범위한 개념인데 새소리, 물소리, 밥 짓는 소리 등의 삶과 자연의 소리 외에도, 인간이 내는 음성인 울음소리, 웃음소리 등의 다양한 소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온갖 소리들을 ‘노래’나 ‘아니리’와 함께 다양하게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판소리’인 것이다. 특히 감정적으로 고조를 더해줄 때 심리를 반영하기 위한 소리도 담겨져 있으며, 상황의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의성어 및 의태어 등의 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소리’는 특별한 지식 없이도 누구나 낼 수 있으며, ‘소리’를 듣는 것은 감각에 활기를 더해줄 수 있고 내적인 측면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는 그 자체로서 감각적인 매체이고, 내면을 표현하고 개방하도록 만들며,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접촉하고, 자신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리’의 치유적인 힘인 것이다. 둘째, ‘추임새’라는 소통방식이 주는 상호작용이다. 공감하는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자 ‘추임새’를 넣는 것은 또 다른 소통방식이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게 되면서 내용과 감정 및 정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동시에 즐거움을 수반하게 된다. 셋째, ‘웃음’의 제공이다. 사실 ‘웃음’이 주는 역할은 치료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다. ‘웃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삶 자체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포괄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판소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슬픈 상황도 희화화를 통해 웃음으로 제공한다. 때론 구슬픈 창(노래)이 이어지다가도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

('아니리')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들이 표출되고, 웃음으로 넘쳐
깊으면서 내면이 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창작
판소리' 또한 판소리의 한 형태로서, 전통판소리의 기본 형식을 갖추고, 내
용의 소재나 주제 및 삽입된 노래는 시대상을 반영하였기에 그 치유력에 있
어서는 전통판소리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렇듯 판소리 및 창작판소리는 치
유력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치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김천사(2011)는 “신체동작(발림), 소리(창), 연기(성음) 등으로
효과적인 자기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p. 46)고 하며 판소리를 통한 자기표
현이 자신감 회복과 긍정적 기대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백대웅
(2006)은 판소리에 대해, 자기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하였으며, 이수연(2012)은 내재된 감정을 표출시킬 수 있는 중재요소로서 판
소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가 구성하고 있는 고
유의 형식과 음악요소들은 감정적 및 정서적,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극 하는데, 그로부터 유발되는 관련 감정 및 경험과 사고 등을 통해 활발
한 연상 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위와 같은 연구들은 창작
판소리의 치료적 가치 및 치료적 중재요소로서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3) 창작판소리의 치료적 역할과 활용

창작판소리의 중점적인 치료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성 및 친근
감 있는 소재와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한 창작판소리를 음
악자서전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기표현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제공하고자
한다(서우중, 2007). 현실성 및 친근감 있는 소재는 친숙한 환경 속에서 회
고하며 내면과 억압된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이
렇게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정서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
게 된다(Bruscia, 1998; 최병철, 김영신, 2006, 재인용).

둘째, 우리네 친숙한 삶을 소재로 한 창작판소리의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인생회고와 음악적 연상 작용을 촉진하며 음악자서전과 함께 활용되었을 때 자기표현을 함에 있어 상호보완적이며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 창작판소리는 우리네 삶을 소재로 한 ‘아니리’와 ‘소리’를 통해 인생회고가 촉진될 수 있고, 현실성 및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동질감 및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인생회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이수연, 2012).

위와 같은 역할을 통해 창작판소리의 치료적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판소리의 쉬운 언어 및 친근한 소재를 통해 인생회고의 단계별 주제를 제시하거나 회고를 유도한다(서우중, 2007). 둘째, 창작판소리의 요소와 형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인생회고 및 연상된 음악을 ‘아니리’ 및 ‘소리’에 삽입하여 활용한다. 즉, ‘음악자서전’ 활동을 통해 연상된 음악들은 창작판소리의 ‘소리’ 부분에 삽입하고, 회상된 기억 및 추억들은 ‘아니리’로 작사하여 도입하는 방법이다.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민요로부터 수용된 노랫말과 창작된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으며(이유진, 2006), 수용된 노래에는 민요 외에도 시조나 가사, 잡가, 무가 등의 다양한 음악들이 함께 삽입되어 있다. 특히 ‘창작판소리’는 소재의 다양성과 시대성을 담기 위해 CM송이나, 가요 혹은 동요 등을 삽입가요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슈퍼맥 씨름대회 출전기》라는 작품은, 목을 풀기위해 짧게 부르는 ‘단가(短歌)’의 역할로 만화영화 「들장미 소녀 캔디」의 노래가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곡조만 변경한 <캔디타령>을 부르며 시작한다. 또한 《눈먼 부엉이》라는 창작판소리는 민요 <새타령>과, 가요 <홍콩아가씨>, 유행가 <바뀌> 등의 음악들을 삽입시켜 부르고 있다(정혜정, 2008). 따라서 연구자는 ‘창작판소리’와 ‘음악자서전’이 가진 ‘언어’와 ‘음악’의 결합이라는 점과 ‘자기표현’ 및 ‘연상적 사고’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두 가지 중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창작관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 안에서 대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삶을 회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조무정, 2015), 이러한 현상학 연구방법론에 대해 김진희(2014)는 양적연구와 다르게 주관적인 경험과 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라고 하며, 경험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것을 경험한 대상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현상(phenomenon)’에 대해 이옥선(2014)은 “실재(existence)가 아닌 ‘현존(presence)’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반드시 주관 속에 나타나며 주관 속에서 지각되는 체험을 말한다.”(p. 30)라고 하였다. 즉, 양적으로 보여주기 힘든 인간의 심층적인 의식이나 행위의 동기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으로서,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고명한, 2011). ‘현상’들은 다양한 해석을 통해 이해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며 기술하게 된다. 이렇게 경험을 중시하는 이유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의미를 밝혀냄으로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홍성하, 2011).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과 현상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전개하며 그것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경, 이광호, 2014).

현상학적 연구는 Colaizzi(1978), Giorgi(1970), Van Manen(1990), Spiegelberg(1975)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 중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Giorgi(1985;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2004, 재인용)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대상자가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경험의 의미를 구조로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즉, 일상세계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심층연구를 통해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김분한 등, 1999).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는 기본이 되는 몇 가지 개념이 있다. 그 첫째는 ‘의식’으로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경험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탐색하고 파악하며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는 ‘대상’이다. 이는 무엇을 보고자하며 무엇을 향해있는지의 의미로서,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질을 발견하기 위한 ‘자유변경기법(Imaginative variation)’이다. 이것은 상상의 과정으로,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을 발견하게 되며 경험의 의미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서미경, 2010).

이처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자가 갖는 경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상호관련성과 의미를 찾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주, 2005). 또한, 개별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며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김분한 등,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총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는 ‘전체의 인식’단계로서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그대로 기술하여 다음 단계에서 의미 단위들을 구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

다(문지영, 2014). 이 단계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여 필사한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거친다. 2단계는 ‘의미단위분석(Meaning Unit)’단계로서,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에 중점을 두고 의미단위를 분석하여 구별하는 단계이다(Giorgi, 1985;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2004, 재인용). 이 단계에서는 필사된 전사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정교하고 세밀하게 읽어내려 가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작업을 거치므로, 민감성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이현주, 2005). 3단계는 ‘학문적 용어로의 변형’단계로서, 도출된 의미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앞서 구분해 놓은 의미단위들을 ‘자유 변경법(Imaginative Variation)’이라는 ‘창조적 사고(Imagination)’를 통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 도출된 중심의미를 상식의 언어를 통해 연구자의 말로 기술하여 학문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마지막 4단계는 ‘구조로의 통합’단계로서, 변형한 의미단위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통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게 되는데 의미단위로부터 도출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찾게 된다(문지영, 2014).

2. 연구절차

1)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S재활요양병원의 뇌졸중 노인 환자로써 인지적으로 손상이 없고, 연구의 취지를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의한 환자 2명(A, B)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65세(A)와 75세(B)의 여성 환자이며, 모두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로서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대상자	성별	연령	진단명	종교	결혼여부	발병일시
A	여	65	뇌졸중(좌측 편마비)	무교	기혼	2014. 01. 08
B	여	75	뇌졸중(좌측 편마비)	불교	기혼	2013. 03. 26

2) 연구 기간 및 절차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음악치료의 기간은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연구취지 및 비디오 촬영에 동의하고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불편함 없이 참여 가능한 자로 표집 하였다.

음악치료 세션은 총 12회기로서, 주 2회씩, 6주 동안 개별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이 시작되기 한 주전에 사전면담이 30분가량 1회로 진행되었고, 사후면담은 마지막 세션과 함께 진행 되었다. 세션은 서울시에 위치한 S재활요양병원의 음악치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치료시간은 회기 당 40분씩 이루어졌고 환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연구자와 치료사가 동일인이며,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치료 기법은 ‘음악자서전’으로, ‘창작판소리’를 함께 활용하였다. 창작판소리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치료사의 ‘북 연주’가 함께 제시되었고, 음악자서전 활동에서는 치료사의 ‘기타 연주’가 함께 제시되었다.

3. 음악치료 프로그램

1) 회기별 활동 주제

본 연구는 Erikson(1982)의 발달단계에 기반하여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초기-중년기-성인후기-노년기’로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악자서전 활동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장지애와 김영신(2013)의 연구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표 2>와 같이 회기별 주제를 선정하였다. 해당 발달시점의 의미 있는 음악을 선곡하여 감상하거나 노래 불러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며, 치료사가 창작판소리로 주제를 제시하고 해당 시점 및 음악자서전으로부터 회고되는 기억들에 대해 ‘아니리(사실)’ 및 ‘소리(노래)’로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 함께 구성되었다.

치료 회기는 발달단계에 따라 기억에 대한 자극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 이론에 근거한 단계별 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발달단계 이후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고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활동 후반기에는 삶을 총체적으로 회고하고 정리하며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는 인생회고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Erikson(1982)의 발달 단계에 기초하여 구조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인생회고에 효과적이고, 하위 구성요소들이 회고의 소재가 됨으로써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명미엽, 2007),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먼 과거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은 양호하게 나타나며,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이고 자신의 의미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된다(양희복, 2004). 이러한 회상은 인생의 각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행해질 때 비구조적인 회상보다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Havighurst, & Glasser, 1972). 또한, 인생회고의 구조화된 주제 및 질문을 통해 회고하고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각 단계별로

해당하는 발달과업 및 갈등과 이슈를 다룸으로서 재경험하게 되는 감정 및 정서를 표현해보고 재구조화하며 발달 노년기에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윤현숙, 이강, 차민호, 권중희,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인생발달주기 및 특정 주제를 적절히 혼용하여 단계를 구성하였으며, 단계별 주제들은 해당 발달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발달과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자서전이 진행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김경희, 2010; 이숙, 2006; 장지애, 김영신, 2013), 보통 8~10회기로 치료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총 12회기로 설계되었으며, 구체적인 회기별 활동 주제와 활용된 창작판소리는 <표 2>와 같다. 또한, 치료사와 대상자의 ‘라포(rapport)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음악자서전활동에서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연구들의 제언점(이문정, 2006; 이숙, 2006)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실험 전 연구자가 진행한 상호교류증진 목적의 그룹 및 개별음악치료 유경험자 중 2개월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음악자서전 회기별 활동 주제와 활용된 창작판소리

회기	단계	주제	활용된 창작판소리
1	라포형성	고향	《원주내력》
2	영유아기	출생, 부모님	《회심곡》 中 <부모님은혜>
3	아동기	놀이, 형제자매	《홍보가》 中 「초앞부분」
4	청소년기	학교, 친구	《사철가-이산 저산》(단가)
5	성인초기	사랑, 결혼	《춘향가》 中 <사랑가>
6	중년기	가족, 자녀양육, 출산	《시집살이노래》(구전민요)
7	성인후기	자녀의 결혼	《노총각 거시기가》
8	가장 행복했던 때	행복	《새내기 첫사랑》
9	가장 힘들었던 때	슬픔	《아빠의 벌금》
10	가장 그리운 때	그리움	《심청가》 中 「딸 그리는 대목」
11	소중한 사람들	소중함	《슈퍼택 씨름대회 출전기》
12	노년기	나의 인생여정과 앞으로의 삶	《나의 인생가》(작사 & 작창)

2) 활동절차

활동은 음악자서전의 일곱 단계로 진행된다. 도입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진정성 음악’을 통해 신체이완과 심신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진정성 음악’은 《Robert Haig Coxon Jr-The Light》이다. 대상자는 주제와 함께 제시되는 창작판소리를 감상한 후 회상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떠오르는 기억이나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본다. 이후 떠오르는 기억 또는 느낌 및 감정과 연관되는 음악을 생각해보고, 대상자는 회고를 통해 연상되는 음악을 자발적으로 선곡한다. 만약 대상자가 떠올린 음악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사와 대상자가 함께 감상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활동을 이어가고, 대상자가 음악을 떠올리기 어려워 할 경우에는, 주제로 제시된 창작판소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보거나 대상자가 회고를 통해 떠올린 이야기를 ‘아니리(사설)’와 ‘소리(노래)’로 작사 및 작창 해보며 음악자서전의 경험을 이어간다.

창작판소리로 주제를 제시할 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작품을 활용하며 주제부분이 잘 드러나는 대목을 중심으로 대상자가 길게 느껴지지 않도록 제시한다. 또한 ‘창작판소리’와 함께 기존의 ‘전통판소리’와,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목을 풀기 위해 간단히 부르는 ‘단가(短歌)’ 및 ‘구전민요’와 ‘불교가요’ 등을 함께 활용하여 활동주제와 연관성 있도록 적합하게 제시한다. 단, ‘불교가요’의 경우,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가사부분을 활용하고, 치료사는 활용되는 음악의 장르에 따라 ‘북 연주’와 ‘기타연주’를 적절히 제시한다. 마지막 회기인 ‘노년기’에서는 대상자의 전체적인 인생여정을 ‘나의 인생가(人生歌)’라는 주제를 통해 통찰하고자 한다. 활동은 치료사가 제시하는 ‘아니리(사설)’나 ‘소리(노래)’의 구조 안에서 대상자가 1~11회기까지 전반적으로 회고한 내용을 통해 작사 및 작창을 해보고 노래 불러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활동은 매 회기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며, 활동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 절차

순서	활동내용	시간
도입	신체 이완	5분
본 활동	창작판소리활용 음악자서전 (노래 회상하기,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하기 노래 만들기-작사 & 작창, 가사토의하기 등)	30분
맺음	활동 정리(느낀 점)	5분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험을 통해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개인들의 경험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실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외부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1인과 함께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검증(peer-review)’을 시행하였다.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연구자만의 주관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5. 연구윤리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윤리를 참고하여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필수적인 연구윤리지침을 고려하였다. 연구자는 최근 1년간 ‘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였다.

1)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실시기관의 관계자인 입원상담실장과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실험진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 원무과의 승인 후 기관 담당자의 동의하에 연구 참여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된 2명은, 인지적으로 손상이 없고, 연구의 취지를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의한 노년층 노인환자이며, 참여여부와 동영상촬영 및 개인정보 등의 자료수집에 대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이와 함께,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참여기간 및 시간, 동영상촬영의 이유,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의 자유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되었다. 연구 불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렸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익명의 사용 및 연구 후 관련정보의 일절 폐기처분에 대해 안내하며 서약하였다. 또한, 뇌졸중 노인이 ‘취약한 대상자’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따라 치료진행 여부 및 치료시간과 요일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함에 대해 설명하였다.

2) 연구과정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들을 절대 비밀로 유지하였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로 답변을 요구한다거나 응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상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부담스러워 하는 날에는 강제로 치료를 강행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상황은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를 배제하여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기 위해 ‘동료 검증’을 도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만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동료검증’이 진행될 때는 개방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동료검증에 참여하는 1인에게 별도로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기초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총 4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의 인식-의미단위 구분-학문적 용어로의 변형-구조로의 통합’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구성요소 도출 및 내용

본 연구는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을 통해 뇌졸중 노인들이 경험한 현상들을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총 319개의 의미단위가 추출되었다. 이후 의미단위들의 관련성을 찾고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2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8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8개의 구성요소는 ①회고 속 사실 및 의미전달의 경험, ②생각이나 느낌 및 감정전달을 통한 경험, ③의성어 및 의태어와 감탄사를 통한 경험, ④묘사(描寫)또는 모사(模寫)를 통한 경험, ⑤음악을 통한 경험, ⑥추임새를 통한 경험, ⑦신체동작을 통한 경험, ⑧표정 및 시선을 통한 경험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기표현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어, ‘언어적 표현’, ‘음성적 표현’, ‘신체적 표현’의 3가지 자기표현으로 다시 분석될 수 있었다. 구성요소와 하위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의미단위들의 구체적인 예는 <표 5>와 같다.

<표 4>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 노인의 경험에 대한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회고 속 사실 및 의미전달을 통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상한 기억에 대한 환경 및 장소, 시간, 때 등의 사실을 전달함. -회고된 추억의 상황 및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의미를 전달함. -다양한 언어표현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억 및 추억을 공유함.(부가의문문, 반문, 설의법, 인용법, 가정법 등) -회고 속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 -음악을 통해 연상된 기억을 회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및 현재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함.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도(理解度)와 분별심(分別心)을 표현함. -떠오르는 노래 및 음악에 대해 자발적인 의사표현으로 제시하며 생각을 전달함. -음악과 창작판소리의 ‘아니리’를 통해 감정몰입 및 감정표현을 함.
언어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 및 사람의 모양과 소리를 흉내 내며 사실적으로 표현함. -느낌 및 탄성을 감탄사로 표현함.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감탄사로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고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며 묘사함. -회고한 상황 및 인물의 말투 및 목소리를 흉내 내며 대화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함.
음성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래 부르기 및 감상을 통해 회고 및 내면을 표현함. -‘소리(노래)’ 및 ‘아니리(사실)’의 노래 만들기를 통해 회고 및 내면을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판소리의 내용과 노래에 대한 공감 및 정서를 추임새로 표현함.
신체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짓을 통해 언어적인 설명을 보충함. -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몸짓 또는 손짓을 사용하며 의사 및 감정을 표현함. -음악과 함께 신체를 사용하며 감정표현을 극대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정 및 시선을 통해 언어적인 설명을 보충함. -표정 및 시선을 통해 감정 및 내면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표 5>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의미단위의 예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의 예 (대상자 A, 대상자 B)
<p>① 회고속사실 및 의미 전달의 경험</p> <p>【① ⑤】</p>	<p>① 회고한 기억에 대한 환경 및 장소, 시간, 때 등의 사실을 전달함</p> <p>[A1,A2,A3,B1,B2,B3]</p>	<p>A 1: 고향이 경기도 안성이에요. 시골에 보면 개천 마냥 개울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놀던 생각.. 물 담그고 그런 생각나네요.</p> <p>A 2: 서울에 와갖고 친구들 사귀고 돌아다니며 놀고.. 뚝섬, 한강... 그 전에는 그런 데서 한창 수영들 할 때라... 지금은 못 하게 하지만... 우리 저기 때는 한강 가서 수영하고 했었어요.</p> <p>A 3: 제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학교만 끄게 다니다가 스무 살 초반에 결혼을 했었으니까...</p> <p>B 1: 내 고향은... 포항에서 한... 이십리 가는 길에 흥해라 카는 곳에... 거기서 학교 다녔어요.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해방되고 5살 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75살이니까... 내가 5살 때 나왔으니까... 해방되고 70년 됐지요. 5살 때 나오던 기억이 나요. 피난가고 했던 거도 생각나지요.</p> <p>B 2: 포항에서는 흥해에서 15살 때까지 거서... 아주 시골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눈도 많이 오고.. 학교를 다니다가 산으로 많이 다녔는데, 산에 산딸기도 많이 있어서 산딸기도 많이 따러가고... 그 때만해도 신발을 땔 신었나하면, 짚신을 신었거든...</p> <p>B 3: 그리고 내가 장사를 오래 했거든요. 내가 식당을 했어요. 사람을 데리고 했지요... 한 30년 했어요...</p>

<p>② 회고된 추억의 상황 및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의미를 전달함 [A4,A5,A6,B4,B5,B6]</p>	<p>A 4: 나물 뜯으러 다니고 뭐하고 그러고 하다가 나물 뜯어다가 씻고도 하고 할 때였으니까...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일거예요. 그리고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그 때만 그네를 메어놔요. 타고 놀으라고 애들... 어른들이 메어줬죠. 타고 놀라고... 참 좋았어요.</p> <p>A 5: 앞에 이렇게 여고가 있었어요. 그럼 학생들 뒤에 나와 갖고 앉아서들 지껄이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도 그거는 그리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다닐 수 있을까 했는데 이사를 와갖고 그래서 못 갔죠. 그 학교는...</p> <p>A 6: 그 때 우리 옆집에 사는 집이... 그 집엔 또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언니랑 나랑 둘 밖에 없어갖고 단출했는데 그 집은 애들도 많고 식구들이 많고 해서 그 집애를 자주 놀러가요. 그 집은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아 주...</p> <p>B 4: 우리 언니도 참 머리가 좋았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등생 그래 하고... 공부 잘했다. 선생님이 공부를 잘해갖고 머리가 아깝다고카고.. 가정이 그래 해서 카지... 그래서 숙제같은거도 언니가 다 해주고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춤을 잘 추고 그래했는데. 그니까는 예술계학교인가 모양이지... 내를 우리 아버지가 보내야겠다 카면서... 그랬다 카드라고 우리 아버지가...</p> <p>B 5: 네. 그 때 고생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고 그라드라고...</p> <p>B 6: 내가 오래했어요. 장사해갖고 시골에서 공부를 그래 시킬라카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가 우리 아들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 시켜가 대학에 고시공부도 하고 그래 합격해갖고 했으니까.. 돈이 많이 들었다 아 입니까. 다행히 장사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으니까... 열심히 벌어갖고 공부 시키고 했죠.</p>
---	---

③ 다양한
언어표현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억 및 추억을 공유함
(부가의문문, 반문,
설의법, 인용법, 가정법)
[A7,B7,B8,B9,B10,B11]

- A 7: 지금은 못 하게 하지만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때는 한강 가서 수영도 하고 했었어요. 지금은 또 무슨, 무슨 행사 있을 때만 많지... 우리 댄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는 곳도 많고... 너무 좋았지...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돌아다니고 다시 놀 것 같애... 또 놀 것 같아요... 하하하.
- B 7: 그런 기억이 많지요... 다섯 살 때인데... 선생님도 다섯 살 때 기억 잘 안 나지요? 나는 기억나는 게 많아요. 다섯 살인데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 이래 기억이 다 나고 하는데 지금 이려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그렇다 아입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래 누워있어 보이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허리도 엄청 아프다... 내가요 참 불쌍한 늙은이요 진짜...
- B 8: 마당에 우물도 있고, 꽃밭도 있고...정원이라 카지요...?있었어요.우물도 있고..집이편찮았지. 옛날에 다 우물에 물 퍼갖고 다 산다 아입니까... 생활 그래 다 했다 아입니까... 마당에는 백일홍도 심고...시골엔 그러고 살잖아요.
- B 9: 우리 엄마는 옛날 엄마들 왜 하얀 수건 같은 거 많이 썼다 아입니까...? 애들 입고.. 하얀 수건을 입수건이라 카거든... 그거 쓰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네..
- B10: 마당에 가면... 이래 돌맹이 세워놓고 그치예...? 그래 이래가 하는 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시골말에 큰 언니가 엄마 대신이라 안합니까... 그 정도로 의논할 수 있고... 또... 시골에서는 근데 물에 가가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했거든요... 시골 거는 목욕탕 같은 게 없다 아입니까? 그래 여름 되면 또랑같은 데 가가 씻고 주로 밤에 가지요.
- B11: 내가 좀 더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뻘을 낀데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이라도 걸으면... 설 수만 있으면요 그자... 조금만 걸을 수 있으면 왔다갔다하고... 병실 안에서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요...

<p style="text-align: center;">④ 회고 속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 [A8,A9,A10,B12,B13,B14]</p>	<p>A 8: 항상 나 언니가 업고 느티나무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업고 다니면서 했던 거 생각나요. 나는 막 돌아다니며 놀고 소꿉장난도 하고 그랬는데...</p> <p>A 9: 살림도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잘 못했지 그 땐... 그 땐 내가 진짜 어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p> <p>A10: 난 못 깎아요. 달라고 부르면 얼마나 그러면 그거 다 쥐야지. 그걸 못 해 봤어요. 달래는 대로 주고 사고 그러지 깎고.. 뭐 저거 해 본 적이 없어요.</p> <p>B12: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춤을 잘 추고 그래왔데.</p> <p>B13: 나는 우리 언니를 역수로 따라 다녔거든요. 언니가 친구 집에 가면 따라가고... 역수로 따라 갈라고 하고...</p> <p>B14: 그 때 나는 물에 드가는 건 겁이 나테...꼭 무슨 뭐가 나올 거 같아가 무섭데...</p>
<p style="text-align: center;">⑤ 음악을 통해 연상된 기억을 회상함 [A11,A12,A13,B15,B16,B17]</p>	<p>A11: 나도 모임 가서 꼭 이...내 저거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꼭 이걸 불렀어요. 조용필 노래 이것도...들으니까 옛날 생각난다..부르고했던거</p> <p>A12: 그거하면서는 ‘푸른 하늘 은하수’이렇게 부르고... 손으로는... 노래 부르면서... 어렵פות 기억 이 나네요.</p> <p>A13: 항상 이 음악 나오면 라디오 시작. 잠 안 올 때... 친구들이랑 누워서 이거 잘 들었었거든요. 그 때 친구들이랑...</p> <p>B15: 그... 최영장군! ‘황금 보기를 둘 같이 해라’카는... 그 때 있지예...고무줄 하면서 우린 그거 많이 불렀는데... 그 때 있지예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잖아요. 그라마 치마가 팔랑인다고. 그래 입고 팔랑팔랑 하면서 그래 고무줄을... 그라던 게 생각나네...</p> <p>B16: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 아버지가 그걸 술 마시면 부르고 하드라고. 거기...</p> <p>B17: 그 때 우리... 다리 이렇게 쭈루룩 내놓고 양쪽에 이렇게 해놓고 불려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다리 쭈루룩 놓고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하면서..</p>

②
생
각
이
나
느
낌
및
감
정
전
달
의
경
험
【
⑥
〈
⑨
】

<p>⑥ 과거 및 현재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함 [A14,A15,A16,B18,B19,B20]</p>	<p>A14: 생각을 해보면... 철없었죠. 그 땐 너무 철없 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라 고 하고 이렇게 안고 싶어요... 언니는.. 지금 도 사실 항상 보면 언니는 미안해요...</p> <p>A15: 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생각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아저씨한테 고 마운 건... 항상 그...우리 엄마 그렇게 아프고 그런 거 때문에 짜증도 나고 할 텐데... 그런 모습... 고맙죠... 지금도 저한테 너무 잘하 고... 참 착해요...</p> <p>A16: 지금도 그 얘기하면 아휴... 언제 그런 저기가 또 올까... 그런 생각도 나고.. 다들 결혼들 해서 잘 사나...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오늘 은... 가슴이 이렇게 뭐가 확 저거 메이면서 그러네... 찡하니...</p> <p>B18: 그 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지요. 너무너무 좋 았지요. 힘은 들어도 그때가 행복했어요. 그 리고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그만큼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많이 늙었구나... 그런 생 각이 들어요.</p> <p>B19: 그때 생각하면... 나는 그 때 마음이 너무 아 팠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좋은 추억도 있 는데 짠하기도 해요...</p> <p>B20: 아휴 근데 답답하고 참 병원생활이게 그렇다 아입니까...내가 자식들 위해서 참고 견디야 지.. 그냥 참고 견디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지... 내가 자꾸 힘들다하면 즈그들도 더 피롭고 할 거다 싶어서...</p>
<p>⑦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도(理解度)와 분별심(分別心)을 표현함 [A17,A18,A19,B21,B22]</p>	<p>A17: 나 가사는 잊어버려서 몰라요.</p> <p>A18: 노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제 막 돌아다 니며 놀고 그랬지 노래 그런 건 별로 안했고 생각도 안나...</p> <p>A19: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던 거 같애... 그땐 그냥 그렇게 무서워서... 겁이 나서... 문 을 열기가 무섭고 싫드라고...</p> <p>B21: 글썽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 건 모르겠 고 그거만 기억이 나...</p> <p>B22: 이래 나와가 이야기하고 노래도 듣고 하니까 좋네요.</p>

<p>⑧ 떠오르는 노래 및 음악에 대해 자발적인 의사표현으로 제시하며 생각을 전달함 [A20,A21,A22,B24,B25,B26]</p>	<p>A20: 글썩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건데...</p> <p>A21: 내 저거...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꼭 이걸 불렀어요. 그냥 애창곡이에요. 그.. 뭐지.... 고추잠자리 그것도... 이상하게 이 노래는 불러지더라고....</p> <p>A22: 그런데요 그냥... 지금 하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듣고 갈 수 있어요? 장녹수 노래인데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p> <p>B24: 그래서 내 혼자서 아래계도 혼자 노래도 부르고 해봤어요. 나의 살던 고향도 몇 번 불러봤다. 그 노래가 좋아가... 오늘도 한 번 불러보고 싶으네요.</p> <p>B25: 그..... 친구여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좋아했어요.</p> <p>B26: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리 오너라 같이 놀자’ 아니다 그래 ‘업고 놀자’ 이거네. 좋더라고...</p>
<p>⑨ 음악과 창작판소리의 ‘아니리’를 통해 감정몰입 및 감정표현을 함 [A23,A24,A25,B27,B28,B29]</p>	<p>A23: 음... ‘다시 올 수는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여기요. 이 부분이... 다시 올 수는 없죠... 그런 놀았던 시절이...</p> <p>A24: 이거 진짜 이야기예요? 아! 난 또 여기 진짜 이야기라고...하하하. 진짜 같잖아요. 재미있네요. 근데 부모마음은 이거처럼 진짜 그래요.</p> <p>A25: 자식 위해서 엄마가 저거하려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는... 나는 이래 슈퍼 같은 건 없어요. 여기 앞에 이야기가 뭐 슈퍼, 슈퍼 하든데.</p> <p>B27: 저거 참 좋은 얘기네요 그자... 이거 소리 들으니까 우리 애들도 시집, 장가보낼 때 생각이 나요.</p> <p>B28: 여기도 가사가 딸이 그림다고 하네요... 나랑 같으네...</p> <p>B29: 아! 그렇구나. 들어본 적은 없는데 진짜로 시집살이 하는 거 같은 내용이네. 그게... 진짜로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이었던거지예... 진짜 여기 적힌 것처럼 일부중사가... 마음에 가뜩 베여가 있거든요... 일부중사 해야 한다</p>

	<p>카는 게... 옛날엔 그랬어요... 꿈에도 생각 안 하지요 아무리 힘들어도...맛다...참... 이야... 어테서 구해서 이래 노래로 판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노... 가사가 진짜다... 이게 이야기가 진짜 이랬어요.</p>
<p>③ 의 성 어 및 의 태 어 와 감 탄 사 를 통 한 경 험 【 ⑩ ~ ⑫ 】</p>	<p>A26: 또 싱아라고 좀 ‘시콰, 새콰해요...’ 그런 이파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 뜯어갓고 먹고 들 했어요. 그래서 나물도 뜯고.... 근데 다른 친구들 바구니에는 나물이 ‘수북~’한데, 나는 항상 밑에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친구들 바구니끼 갖다 내 바구니에다가 ‘썩~’.</p> <p>A27: 우리 동네에 개울은 또랑물 흐르듯이 왜... 맑은 물... ‘졸졸졸졸’ 흐르고... 아주 맑은 물도 ‘졸졸졸졸’ 하는 게 아주 저거하고... 그 절에 가면은 이런 새소리 있죠, ‘쩍쩍’거리는 소리... 진짜 생생하게... 아주 이런 소리는 진짜 저리가라예요. 또 풍경소리가 이렇게 ‘땡~땡~’ 하고..</p> <p>⑩ 사물 및 사람의 모양과 소리를 흉내 내며 사실적으로 표현함 [A26,A27,A28,B30,B31,B32]</p> <p>A28: 그 때는 창경궁에 사람들이요 아주... ‘바글바글’ 했었어요. 또 항상 저렇게 책가방... 한 쪽 여기다가 ‘탁!’하고 옆에다 이렇게 끼고서... 이려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전부 이렇게 가방 들고 거기를 ‘쪼로록’ 내려오면...</p> <p>B30: 빵모자 있지예... 꽃이 ‘주렁주렁’ 달린 빵모자를 딱 쓰고...</p> <p>B31: 젓 먹으면서 ‘통통’하이 살찌면서 ‘뽀야이’해가 참 이쁘더라고...</p> <p>B32: 그러면 한 병에서 올라오거든. ‘뽀글뽀글~’하면서 올라오는데 그걸 조금 떠먹으면 억수로 맛있거든요... 달거든요... ‘달달’하니... 참 맛있어요. 달콤하고... ‘뽀글뽀글’하고 올라오면 그런 거를 먹고 했어요.</p>

<p>⑪ 느낌 및 탄성을 감탄사로 표현함 [A29,A30,A31,A32,B33,B34]</p>	<p>A29: ‘하... 참...’ 참 재미났었어요...</p> <p>A30: 얼마나... ‘그...’ 내가 ‘하유...참...’ 멋있다...그러 고 그랬었어요.</p> <p>A31: 그 때는 그냥 가마솥에 쌀 얹혀놓고, 그럼 ‘아우!’ 정말 너무 맛있어... 그 때 그러고 그 랬었어요. ‘참...’</p> <p>A32: 그 땀 뀌... 남진,나훈아! 남진 나훈아는 ‘카... 뀌...’</p> <p>B33: ‘이야...’ 내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었어요. ‘이야... 세상에나...’</p> <p>B34: ‘참...’ 지금은 늙어가 자꾸 잃어가고... 이상한 병이 들었다하고 그래 샀지만... 그러지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면... 난 다 기억나요... 그래 세월이 흘러가 외손자는 지금 대학생이 고... ‘참!’ 올해 졸업했어요...</p>
<p>⑫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감탄사로 표현함 [A33,A34,A35,A36,B35,B36]</p>	<p>A33: ‘그...’ 그 집은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아 주... ‘그...’ 친구이름도 기억나고...</p> <p>A34: 그런데요 저번 시간 때 선생님하고 이야기하 고서는 ‘글쎄...’ 꿈에... 확... 친구들이랑 막 나물도 뜯으러 다니고.. ‘그...’ 꿈에 그랬어 요... 꿈에... 그래서 아이고 별일이다... 별일 이야...그랬어요.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p> <p>A35: 늘... 그냥... ‘그...’ ‘음...’글쎄요... 뭐라 그럴 까... 생각을 해보면... 그니까는 우리 엄마는 항상 남이... 남을 얼마나... 저거 하는지... 동 네 사랑방이에요. 다들 오면 밥 먹고 가고....</p> <p>A36: ‘음...’ 그 친구는 처녀 때 양장점을 했었어요. 신랑하고 같이.</p> <p>B35: 나... ‘그...’ 콩 같은 거 안에 넣어가지고, 그... 뿔이라더라... 오자마라고 있는데...</p> <p>B36: 마당에 가면... 이래...‘어...’ 돌맹이를 세워놓고 그지에... 그래 이래가 하는 거도 많이 했는 데... ‘그...’ 그걸 뿔이라 하더라...</p>

⑬ 회고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며 묘사함
[AA37,A38,B37,B38,B39,B40]

- A37: 남산 밑에 그... 무슨 남자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방송국이 하나 또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위로... 후암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남산위로 올라가고... 여튼 그리로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 A38: 우리 집이요 이렇게 디근자집이었거든요. 안채가 이렇게 살고, 양쪽으로는 세놓고, 저기하고 쪽 나오면 마루 있고, 앞에는 대문이 있고. 넓게 살았어요.
- B37: 이래 바로 뒤에가 산이고.. 초가집에다...이래 앞에 마루가 길쭉하이 이렇게 마루가 있고, 청마루가 있고.. 산이 뒤에가 산이고... 옆에는 논이고.. 모습이 이래 생각 나네...
- B38: 우리 아버지는... 그러이끼네 하얀 두루마기를 많이 입는데, 코가 오뚝하고, 눈썹이 새까맣고, 눈이 또 쌍커플이 동그랗이 크고, 내가 우리 엄마보다도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또 이래 구렛도 거뭇거뭇하이 있고, 피부도 진짜 좋았어요.
- B39: 그래보면 옛날에 우리 언니하고 사진보면... 머리를 요래 하고... 딱 요래 단발로 하고, 다리를 쪽 피고 요래가 앉아 있는데, 사진을 그래 찍어놨대. 그리고 우리언니는 요래 또 해가지고 그리고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 무슨 인형을 하나 딱 앉고 찍어놨대... 하얀 색깔 인형을. 내가 다섯 살 때...
- B40: 이렇게 일본 집에서... 창문이 요래 돼 있는데, 밖에 내다보면서... 찬장이 요래 있는데 딱 손을 얹어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언니랑 내랑 들어서 보면서 문이 참 크다 아입니까... 그래 문을 열어가 내다보다가, 문을 널쭈는기라...우리 집 앞에 보면 큰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엄마 오는가 싶어갖고 얼마나 내다보고... 그래 나가서 또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엄마를 기다리면서...

<p>⑭ 회고한 상황과 인물의 말투 및 목소리를 모사(模寫)하며 대화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함 [A39,A40,A41,A42,B41,B42]</p>	<p>A39: 내가 나 가르치는 다른 선생님한테 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 선생님이예요”라고 했더니, “에이~지금 가르치는 선생님 있는데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그래도 어떻게 해 좋은데. 정말 잘해줬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손주가 병원에 와서 치료사선생님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둘째 손주는 꼭 그제 오면 이렇게 날 끌어안으면서 “할머니~할머니~”하고 끌어안고 뽀뽀를 이리저리 여기다 뽀뽀 다 해요. 하하하하. 그런데 큰 애는 그런 걸 또 몰라. 그래서 작은 애는 오면 그제 “할머니! 할머니! 잘 봤어? 어디서 잘 봤어?”이래요. 그러면서 개는 농담하면서... 지 색시감... 여기 선생님들 있으니까 저하고 잘 저거 할 사람 있나 보래요. 그런 소리를 아휴... 그렇게 잘 지껄어요. 웃겨요 개는.</p> <p>A40: 우리엄마는 음식올요 참 맛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동네사람들이 “아~ 아줌마가 해야 밥이 맛있지”그러고 그랬었어요.</p> <p>A41: 이상하게요 내가 밥만 먹으러 나가면 비가 잘 와요... 아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이상하게 엄마가 밥만 먹으러 나가면 비가 오지”이러면서 왜 그러냐고... 하하하 많이는 안 오는데 그래도 부슬부슬 이정도로 잘 오더라고...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웃겨요 참.</p> <p>A42: 그래서 며칠을... 저거... 돈 모아가지고는 그걸 팔았어요. 밤에 친구들과하고 찹쌀떡을 “찹쌀~떡! 찹쌀~떡!”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팔러 다녀가지고 판돈으로 친구들과하고 쇼 구경도 가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참... 웃음이 다 나네...</p> <p>B41: 그래서 내가 딸보고 흰하고 둥글둥글하고 복스럽다고 달덩이 같다고 그래하는데 딸은 싫어하드라고. 촌스러운 소리라 카면서... 근데 그기 좋은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은 내보고 “엄마 그게 인물이 좋은 게 아니다”그</p>
---	---

	<p>라면서 지는 싫어하드라고 촌스러운 소리라고... 그래놓으니까 살을 빼더니만 쪽쪽 빠져 갖고... 지도 근데 지금은 캐요. “엄마 내가 살을 너무 많이 뺐는갑다”카면서...</p> <p>B42: 근데 안 델꼬 갈라고 우리 언니가 내보고 “이거 하나 주꾸마”카면서 과자 같은 거 주고... 근데도 결국은 따라갑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⑤ 음악을 통한 경험 【 ⑮ 】</p>	<p>A43: 《절레꽃》, 《홍시》, 《꼬까신》, 《금강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반달》, 《님과 함께》, 《여고시절》, 《태평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고추잠자리》, 《단발머리》, 《장녹수》, 《Merci Cherie》, 《Sunny》 등의 총 15곡을 자유롭게 자발적인 선곡 후 노래 부르기 및 감상활동을 통해 회고 및 내면을 표현하였으며, 그 외 《사랑가》, 《시집살이 노래》, 《새내기 첫사랑》, 《슈퍼덕 씨름대회 출전기》, 《나의 인생가》 등의 창작관소리는 감상 및 노래 만들기의 활동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였다. 그 외 치료사가 주제로 함께 제시 한 창작관소리들은 감상 후 주제에 대한 짐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시 방법이나 감상느낌을 이야기 해 보거나 혹은 간단한 가사토의로 진행되었다.</p> <p>B43: 《사쿠라》, 《나나쯔노코》, 《노들강변》, 《절레꽃》, 《사발가》, 《최영장군》, 《봄나들이》, 《고향의 봄》, 《친구여》, 《허공》 등의 총 10곡을 자유롭게 자발적인 선곡 후 노래 부르기 및 감상활동을 통해 회고 및 내면을 표현하였으며, 그 외 《사랑가》, 《시집살이 노래》, 《새내기 첫사랑》, 《슈퍼덕 씨름대회 출전기》, 《나의 인생가》 등의 창작관소리는 감상 및 노래 만들기의 활동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였다. 그 외 치료사가 주제로 함께 제시 한 창작관소리들은 감상 후 주제에 대한 짐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시방법이나 감상느낌을 이야기 해 보거나 혹은 간단한 가사토의로 진행되었다.</p> <p>⑮ 노래 부르기과 감상을 통해 회고 및 내면을 표현함 [A43,B43]</p>

<p>⑩ ‘소리(노래)’ 및 ‘아니리(사설)’의 노래 만들기를 통해 회고 및 내면을 표현함 [A44,A45,A46,B44,B45,B46]</p>	<p>A44 : (《시집살이 노래》의 창을 작사 후 휘모리 장단에 맞춰 치료사(T)와 대상자(C)가 번갈아 노래 부르기) T:시아버지 / C:양반 새요 T:시어머니 / C:얼음 새요 T:동서하나 / C:어려운 새요 T:시누하나 / C:귀여운 새요 T:시아지비도 / C어려운 새요 T:남편하나 / C:착한 새요 T:자식하나 / C:더 귀여운 새요</p> <p>A45: (《사랑가》의 ‘아니리’를 작사한 뒤 치료사(T)와 대상자(C) 주고받으며 읊기) T:때는, 천 구백 C:언젠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9월 15일! T:그날 날씨는 C:좋았어요. 선선하니 T:신랑, 신부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 C:부여에서 온 신랑과 T:얼씨구 C:서울에서 온 신부000는 백년가약을 맺는다 T:그 때의 기분을 표현하자면 C:그냥 좋았죠. T:그리하였던 것이었다. 그 때여 신랑신부는 업고 노니 난디, A46: (《나의 인생가》의 ‘아니리’를 작사한 뒤 치료사(T)와 대상자(C)가 주고받으며 읊기) -아니리- T:이렇듯 우리나라 태백산 줄기타고 좋은 기운 받아, 때는 C:1951년 6월 0일. T:그 해 여름에 우리 000님이 태어나셨겠다. 000님이 태어나신 마을은, C:경기도 안성 시골이었거늘 T:천지사방 개천에 푸르른 나물이 둘러 둘러 있고 C:병풍처럼 느티나무가 있던 마을이었다. T:그리운 내 고향을 떠올려보니, -휘모리 장단- T:나물 뜯고 얘기하고 C:느티나무 그네타고</p>
--	--

	<p>T:웅기중기 모여앉아 C:내 친구들 생각나니 T:대문달린 우리 집엔 C:마루 있고 방도 있고 T:바로옆집 건넌집은 C:자주 가던 내 친구 집 T:딸 부잣집 친구 집엔 C:김치 송송 볶음밥이 T:그 때 그 맛 그리워라 C:추억속의 그 때 그 맛 T:가마솥에 김치 썰고 C:밥을 함께 불을 때서 T:익네 익어 볶음밥이 C:보슬보슬 절로 익네 T:퍼서먹고 다 먹고도 C:누룽지까지 긁어먹고 T:생각나네 그 때 그 맛 C:그리워라 그 때 그 맛 -아니리- T:이러하듯 좋은 고향에 나서 좋은 부모님을 두었으니 C:친구들과 노래도 하고 지냈었겠다 T:그 때 생각나는 노래를 불러보면, -《꼬까신》 노래- T:시간은 흘러 어느 때 인고 하니 C:내가 제일 행복했던 고등학생. 서울로 올라와 학창시절을 보냈으니, 남진, 나훈아 보러 여기도 획 저기도 획. 그렇게 팬이 되어 노닐어 보는데, -《님과 함께》 노래- T:남진,나훈아 쇼쇼쇼쇼!친구들과 가고 싶어 C:참쌀~떡! 참쌀~떡! 철없었고 행복했던 그 때 그 시절 T:그리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에 눈이 맞아 백년가약을 맺고, C:금자동아 은자동아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아 기르니 T:둥둥둥 내 딸아, 어허 둥둥 내 아들. 아이들을 낳고 보니 좋을 호 자가 절로나. 그리하여 가족이 생기니,</p>
--	--

	<p>-휘모리장단-</p> <p>T:시아버지 / C:양반 새요 T:시어머니 / C:얼음 새요 T:동서하나 / C:더 어려운 새요 T:시누하나 / C:귀여운 새요 T:시아지비도 / C:어려운 새요 T:남편하난 / C:착한 새요 T:자식하난 / C:더 귀여운 새요</p> <p>-아니리-</p> <p>T:그렇게 애지중지 키어온 아들이 장가를 가니 C:그만큼 세월이 흘렀구나 T: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보니, 유독 아련한 때가 있으니 C:학창시절에 놀던 추억이 가장 아련하고, 아들 낳던 때가 너무도 기뻐구나 T:그리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다하면, C:남편이라. T:여기까지 우리 00님의 인생가 C:멋진 내 인생 소중한 추억 T: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시길. 얼썬!</p> <p>B44: (《시집살이 노래》의 창을 작사 후 휘모리 장단에 맞춰 치료사(T)와 대상자 (C)가 번 갈아 노래 부르기)</p> <p>T:시아버지 / C:좋은 새요 T:시어머니 / C:좋은 새요 T:동서하나 / C:잘 지내는 새요 T:시누하나 / C:잘 하는 새요 T:언니하나 / C:보고 싶은 새요 T:남편하나 / C:깔끔한 새요 T:자식하나 / C:이쁜 새요</p> <p>B45: (《사랑가》의 ‘아니리’를 작사한 뒤 치료사 (T)와 대상자(C)가 주고받으며 읊기)</p> <p>T:때는, C:1963년. 9월. 선선한 가을... T:그날 날씨는 C:좋았어요. 억수로 좋았어요. 선선하니 9월 가을 날씨. T:신랑, 신부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p>
--	--

	<p>C:통영에서 온 신랑이랑 T:얼씨구 C:마산에서 온 신부는 백년가약을 맺는다, T:그 때의 기분을 표현하자면 C: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T:그리하였던 것이었다. 그 때여 신랑신부는 업고 노닌다, B46: (《나의 인생가》의 ‘아니리’를 작사한 뒤 치료사(T)와 대상자(C)가 주고받으며 읊기) -아니리- T:이렇듯 우리나라 태백산 줄기타고 좋은 기운 받아, 때는 C:1941년 8월 0일. T:그 해 여름에 우리 000님이 태어나셨겠다. 000님이 태어나신 마을은, C:바다건너 일본 대판이었거늘 T:그곳에서 5살 때까지 지내왔는데, 그리운 내 고향을 떠올려 보니, -휘모리장단- T:단발머리 곱게하고 /C:언니하고 나 하고 T:옹기종기 모여앉아 /C:창가에서 엄마생각 T:지나가는 까마귀에 /C:언니하고 노래하며 T:광복되니 배를 타고/C:한국으로 건너와서 T:포항의 흥해 란 곳 /C:그 곳에서 지내나니 -아니리- T:이러하듯 좋은 고향에 나서 좋은 부모님을 두었으니 C:두 살 터울 언니와 함께 T:그 때 생각나는 노래를 불러보면, -《노들강변》 노래- T:시간은 흘러 포항을 떠나 다시 마산으로 이사를 가고, C:그 곳에서 반평생을 넘게 보냈으니 T:그 곳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C:금자동아 은자동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기르니 T:둥둥둥 내 딸아, 어허 둥둥 내 아들 아이들을 낳고 보니 좋을 호 자가 절로 나. 그리하여 가족이 생기니, -휘모리장단-</p>
--	--

	<p>T:시아버지 / C:좋은 세요 T:시어머니 / C:좋은 세요 T:동서하나 / C:잘 지내는 세요 T:시누하나 / C:잘 하는 세요 T:언니하나 / C:보고 싶은 세요 T:남편하난 / C:뭇다가도 걱정되는 세요 T:자식하난 / C:이쁜 세요 -아니리- T:그렇게 애지중지 키어온 아들, 딸이 시집, 장가를 가니 C:많이 늙었구나. T: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보니, 유독 아련한 때가 있으니 C: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던 순간이 너무도 기뻐구나 T:그리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다하면, C:자식이고, 자식다음 남편이라. T:여기까지 우리 00님의 인생가 C:멋진 내 인생 소중한 추억 T: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시길. 얼썬!</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⑥ 추 임 새 를 통 한 경 험 【 ⑰ 】</p>	<p style="text-align: center;">⑰ 창작판소리의 내용과 노래에 대한 공감 및 정서를 추임새로 표현함 [A47,A48,A49,B47,B48,B49]</p> <p>A47: (《슈퍼택 씨름대회 출전기》 감상 중) 아이 고! 1등이 아니구나. A48: (《노총각 거시기가》 감상 중) 아이고! 맞다 맞어! A49: (《나의 인생가》 노래 후)이야! B47: (《슈퍼택 씨름대회 출전기》 감상 중) 우짜 꼬! B48: (《시집살이 노래》 감상 중) 맞다...맞어... 일 부종사해야 된다고... B49: (주제로 제시 된 《사랑가》 감상 후) 얼씨 구! 좋네요.</p>

⑱ 손짓을 통해 언어적인 설명을 보충함
[A50,A51,A52,B50,B51,B52]

- A50: 그 땀 나물도 이렇게(손으로 뜯는 시늉) 뜯으러 다니고 뭐하고 그러고 하다가... 그리고 또 우리 그 앞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렇게 큰(손으로 높이를 나타냄)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 A51: 우리 집이요 이렇게(손으로 디귤자 모양을 나타냄) 디귤자집이었거든요. 안채가 이렇게(손으로 위치를 나타냄) 살고, 양쪽으로는 세 놓고, 저기하고 쪽 나오면 이렇게(손으로 위치를 나타냄) 마루 있고, 여기엔 대문이 있고. 넓게 살았어요.
- A52: 이렇게 큰(손을 둥글게 만들며 크기를 표현) 가마솥에다가... 불 떼서 밥을 해요... 쌀 얹혀 놓고(양손을 둥글게 말아 둥근 모양을 표현), 그 위에 다가 김치 쫄쫄 썰고(건축의 손날을 이용해 환측의 손바닥 위에 올려 썰는 모습 표현), 김치 국물 조금(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담은 시늉)넣고 해서 밥 위에다가 이렇게(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쥐고 좌우 흔들며 엷는 시늉)엷혀놓고, 불 떼서 이제 밥을 해서 그걸 또 섞어서(팔을 휘저음) 퍼서 상에 들어와 갖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못 먹어...(고개를 휘저음)
- B50: 그래보면 옛날에 우리 언니하고 사진보면... 머리를 요래 하고(건축의 손으로 이마를 갖다 대며 머리모양을 표현함)하고... 딱 요래 단발로 하고...
- B51: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방안에... 이런 게 있다가 입니까,(건축의 손을 위로 올려 사각형의 창틀을 그리면서 움직임) 가에를 삭~ 두르드라고... 단더라고... 비행기 소리가 나면 불빛이 바깥에 비면 안 된다고...
- B52: 안에 주머니 같은 거에 콩을 소복히(손을 으르리며 표현함) 요래 넣어갖고 이래(손을 펴며 손등을 보임) 손을 위에다... 손등에다 엷어가 탁! 치고 이래 갖고 손등에 엷어가 탁! 하고 잡고 하는 건데, 오자마라고 있어요. 마당에 가면... 이래... 어... 이래 가가 돌을 탁!(손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시늉) 던지고,

<p>①9 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몸짓 또는 손짓을 사용하여 의사 및 감정을 표현함 [A53,A54,A55,B53,B54,B55]</p>	<p>A53: 네. 괜찮아요.(고개 끄덕임) 그런데요 저번 시간 때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서는 글썸...(고개를 좌우로 가우똥함) 꿈에... 확... 친구들이랑 막 나물도 뜯으러 다니고..</p> <p>A54: 내가 더위는 정말...(고개를 휘저음)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저거해요(고개를 휘저음).</p> <p>A55: 미국구슬이...(양손을 포개어 마주잡음) 하유...! 너무 이뻐...</p> <p>B53: 글썸요... 모르겠어요.(고개를 좌우로 흔들)</p> <p>B54: 내가요... (손을 가슴에 올리며 자신을 가리킴) 참으로 답답하고.... 그래 살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탁! 간헐이 있는 거 맨치로 그래서...얼마나 힘든지 몰라요.</p> <p>B55: 앞으로는... (고개를 휘저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사는거...</p>
<p>②0 음악과 함께 신체를 사용하여 감정표현을 극대화 함 [A56,A57,B56,B57]</p>	<p>A56: (노래박자에 맞춰 고개를 흔들며 감상) 이야... 좋네요...</p> <p>A57: (노래에 맞춰 손가락을 휘쳐어 손잡이에 가볍게 두드리며 태핑(tapping)과 함께 노래 및 감상)</p> <p>B56: (고개를 자유롭게 흔들며 노래함)</p> <p>B57: (노래를 부른 후 박수를 칩)좋네요.</p>
<p>②1 표정 및 시선을 통해 언어적인 설명을 보충함 [A58,A59]</p>	<p>A58: 그리고 아들은 태몽이... 바다에... 큰... 고기였는데... 엄청 큰 고기들이 많은데 그걸 내가 이렇게(눈을 크게 뜸) 뻥히 보다가 켜어요.</p> <p>A59: 앵두나무 하고 그런 게 그 밤에 우리 앵두나무를 잘 따 먹으러가서.. 한 번은 들켰어...(웃음) 이렇게 놀라가지고는(눈을 조금 크게 뜨며 놀란 표정 후 웃음)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p>

<p style="text-align: center;">⑧ 표 정 및 시 선 을 통 한 경 험 【 ① ┆ ② 】</p>	<p style="text-align: center;">② 표정 및 시선을 통해 감정 및 내면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A60,A61,A62,B58,B59,B60]</p> <p>A60: 진짜 막 애들이랑 놀고 하던 생각 다 나요.. 흠흠(웃음) 정말 그땐 얼마나 멋있었는지.. 하하(웃음) 그 때 또 재미난 게, 모여서들(미 소) 한창 여고생들 남학생들한테 관심 많을 때니까요. 그래갖고 개는 위에 올려다보기 바쁘고, 나는 그럼 나와서 앉아 놀고 그랬죠</p> <p>A61: 네. 맞아요. 한참. 저는 나훈아보다는 남진을 저기 좀 더 좋아했어요.(미소)</p> <p>A62: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시선이 아래로 향 함) 엄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돌아가셨 고... 그런데 항상... 저기... 나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하고 키웠으니까는 엄마가... 너무 고맙고... 그게 참... 엄마 생각나고...</p> <p>B58: 그래서 산딸기를 따러 가는데 그 길을 가다 가 뱀을 탁! 밟아갖고... 아이고... 억수로 무 서웠어요...(표정을 찡그림) 내 기억에 너무 무서워 갖고 그랬던 기억이...</p> <p>B59: 그러니까... 잠시 내 혼자서 일어나지고 이래 왔다갔다만 이라도 되면은 참 이래는 안 될 낀데...(눈시울이 붉어짐)</p> <p>B60: 너무 보고 싶으다...(치료실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짐)</p>
--	--

2. 연구결과

1)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한 경험

다음은 뇌졸중 노인들이 인생회고 및 음악자서전활동을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해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는 ‘아니리(사설)’와 ‘소리(노래)’, ‘발림(몸짓)’ 그리고 ‘추임새’가 해당되며, 대상자들이 경험한 의미들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한 다섯 가지의 의미 있는 경험들이 발견되었다.

① 의성어 및 의태어와 감탄사를 통한 경험(‘아니리’와 ‘소리’)

연구대상자들은 단어 및 문장의 활용이나 어조 없이도 의성어 및 의태어를 통해 회고의 내용과 경험 및 추억을 설명하거나, 감탄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 및 의지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특히 판소리에 적절하면서도 풍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무언가를 인식하는데 있어 흥미롭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상원, 1999). 대상자들은 회고를 하며 이야기하거나 연상된 음악 활동을 할 때 의성어와 의태어를 풍부하게 사용하며 사람 및 사물의 모양이나 소리 등을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자서전 활동에서도 ‘아니리(사설)’ 및 ‘소리(노래)’의 작사 활동 시, 의성어 및 의태어를 가사로 사용하며 생동감 있고 함축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음악 및 회고에 대한 느낌 및 탄성을 “하... 참...”, “아우!”, “캬... 뭐...”, “이야... 세상에나...” 등의 감탄사를 통해 경험하기도 하였다.

② 묘사(描寫)또는 모사(模寫)를 통한 경험(‘아니리’)

대상자들은 회고한 상황과 인물을 구체적으로 ‘묘사(描寫)’하며 표현하거

나 사실적으로 ‘묘사(模寫)’하며 회고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묘사(描寫)’는 판소리의 인접 장르인 탈춤이나 고소설 등에서도 볼 수 없는 판소리만의 특징이다. 특정 장소나 공간 및 다양한 장면의 갈등이나 상황을 ‘아니리(사설)’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주로 등장하는데(이정원, 2002), 대상자들 또한 회고한 장면이나 상황 및 공간, 인물의 모습, 소리 등을 세밀하게 ‘묘사(描寫)’하는 모습을 보였고, 회고한 인물의 말투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대화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模寫)’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는 특정 추억에 대한 ‘묘사(描寫)’를 ‘아니리(사설)’ 혹은 ‘소리(노래)’로 작사하며 경험하기도 하였다.

③ ‘이야기’와 ‘음악’을 통한 경험(‘아니리’와 ‘소리’)

대상자들은 치료사가 주제와 함께 제시하는 창작판소리를 통해 활동주제에 대해 짐작해보는 경험을 하였고, 창작판소리의 주제 및 소재가 유도하는 회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학적 형태’로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짜임새 있도록 구성된 ‘아니리(사설)’와, ‘음악적 형태’로서 여러 감정과 느낌을 감성적으로 나타낸 ‘소리(노래)’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아니리(사설)’ 및 ‘소리(노래)’의 이야기 내용과 가사 및 음으로부터 관련되는 정서 및 기억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상자들은 창작판소리 사설과 가사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을 전달받아(이수연, 2012), 동일시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회고에 대한 접근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었다. 음악자서전에서도 회고의 내용 및 내면을 ‘아니리’의 사설로 정리를 해보고, 연상되는 음악 및 노래를 ‘소리’로 불러보며 경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창작판소리의 ‘아니리’와 ‘소리’는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 회고를 유도하고, 대상자들은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감정이 이입되거나 몰입되면서 회고가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

④ ‘추임새’를 통한 경험

대상자들은 음악자서전 활동 중, 주제의 연상을 위해 치료사가 제시한 창작관소리를 감상하며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다. 관소리에서 쓰이는 추임새들은 장면에 따라 억양의 차이를 주며 구사하는데 그 종류에는 ‘허이’, ‘얼쭈’, ‘좋다’, ‘그렇지’, ‘-지’, ‘얼씨구’, ‘잘한다’, ‘-다’, ‘음’, ‘얼씨구야’, ‘-쭈’, ‘으이’, ‘하(허)’ 등으로 다양하다(양정아, 2006). 본 실험에서 대상자들은 ‘아이고’, ‘맞다 맞어!’, ‘이야!’, ‘우짜꼬!’, ‘얼씨구’, ‘좋네요’ 등의 추임새를 통해 힘을 실어주거나, 공감을 표하고, 빈 곳을 메꾸어 주거나 격려 및 고무하는 마음 등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적 색깔이나 장르가 풍기는 분위기로 인해 과거에 TV 및 라디오의 매체나 공연 등에서 접해본 기억을 통하여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고, 장단에 맞춰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으며, 창작관소리의 끝이 맺어질 때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상자들은 ‘아니리(사설)’와 ‘소리(노래)’의 가사를 통해 전달받은 감정이나 느낌, 생각 등에 대해 공감이 되고 흥미로울 때 가장 많이 ‘추임새’를 사용하였다. ‘추임새’를 넣을 때는 공감 가는 사설의 가사에서 현장적이고도 즉흥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고, ‘추임새’와 함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며 경험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⑤ 신체동작을 통한 경험(‘발림’)

관소리에서 사용되는 ‘발림(몸짓)’은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신체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에 해당되는 요소들은 ‘손과 팔’의 동작, 감정이나 상황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얼굴표정’, 서거나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등의 ‘자세’, 상황을 설명하거나 연기를 하며 극중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움직임’, 인물의 성격이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걸음걸이’, 흥겨움을 표현하기 위한 ‘어깨 짓’, ‘발동작’, ‘시선’ 그리고 물리적인 매체로서 ‘부채’를 활용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유희경, 2009). 이 모든 ‘발림(몸짓)’은 사설의 내용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도 ‘발림(몸짓)’을 경험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대상자들이 직접 창작판소리를 구현하며 ‘발림(몸짓)’을 나타낸다고보다, 회고된 기억을 이야기하거나, 관련된 추억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주로 손짓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상황이나 인물을 묘사하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손짓을 많이 사용하였다. 음악자서전 활동 중에는 흥겨움을 표현하기 위해 손동작이나 고개의 움직임 등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회고내용이나 연상된 음악에 대한 감정에 따라 표정 및 시선의 변화도 나타났다. 특히, 회고만 진행될 때보다 창작판소리 등의 음악이 함께 진행될 때 더욱 역동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

2) 창작판소리와 음악자서전을 통한 자기표현의 경험

다음은 창작판소리와 음악자서전을 통해 나타난 자기표현의 경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경험들은 자기표현의 경험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으며, 크게 언어적, 음성적, 신체적 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발견된 자기표현의 의미 있는 경험은 다음과 같다.

① 언어적 표현

대상자들은 회고를 통해 과거의 사실적인 경험과 의미를 발견하며 재인식(再認識) 할 수 있었다. 회상한 기억에 대해 상황, 경험, 환경 및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이야기하며 사실을 전달하였고, 떠올린 사실들을 현재의 경험에서 다시 의식해보며 그 의미를 찾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회고한 내용과 연관되는 생각이나 느낌 등의 감정 및 정서를 언어적으로 자세히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상황이나 과거의 특정 시점에 대한 분명한 감정을 간결한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자발적인 의사표현으로 생각을 전달하거나 상황에 대한 ‘이해도(理解度)’와 ‘분별

심(分別心)’을 나타내었다. ‘이해도(理解度)’의 경우, 현재의 치료 상황이나 진행에 대해 대상자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치료사에게 즉각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전달 할 수 있었다. ‘분별심(分別心)’의 경우, 불교적인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호불호(好不好)의 명확한 의사표현을 의미하며, 대상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언어적으로 명확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은 다양한 언어표현기법을 사용하였는데, ‘부가의문문(附加疑問文)’과 ‘반문(反問)’, ‘설의법(說擬法)’, ‘인용법(引用法)’, ‘가정법(假定法)’ 등을 사용하였다. 회고의 이야기를 이어가다 추가적으로 덧붙이며 “그렇다 아입니까?”(예: B7), “그지예?”(예: B10), “그죠?”(예: A7) 등으로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동의를 요청하는 ‘부가의문문(附加疑問文)’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회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다 “선생님도 다섯 살 때 기억 잘 안 나지요?”(예: B7) 등으로 질문에 대해 되받아 되묻는 ‘반문(反問)’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어땠겠어요?”(예: B7) 등의 예로 상대방에게 문제를 내는 것처럼 질문하며 상대방이 알아서 짐작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설의법(說擬法)’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옛날에 시골말에 큰 언니가 엄마 대신이라 안 합니까?”(예: B10) 처럼, 자신의 말에 확신을 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 속의 옛말을 인용하여 암유(暗喻)하는 ‘인용법(引用法)’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자신의 소망과 심정을 가정(假定)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상황이나 바람 등을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돌아다니고 다시 놀 것 같애... 또 놀 것 같아요”(예: A7), “내가 좀 더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조금이라도 걸으면... 설 수만 있으면요 그자..”(예: B11) 등의 ‘가정법(假定法)’을 통해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표현기법의 경험 속에서 연구자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이 사용한 언어표현기법들은 ‘인생회고’를 경험할 때 뚜렷이 나타났다. ‘인생회고’를 통해 언어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부가의문문(附加疑問文)’은 회고를 통해 떠올린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기억에 대해 상황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과거의 결정이나 자신의 생각이 옳음에 대해 치료사에게 동의를 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문(反問)’은 대상자들이 회고한 내용을 치료사와 이야기 나누며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험도 함께 공유하길 원하거나 혹은, 자신만이 경험한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해 드러내 보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설의법(說擬法)’은 회고를 통해 느낀 감정이나 현재의 느낌 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용법(引用法)’은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정법(假定法)’은 과거의 후회나 현재 또는 미래의 소망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다양한 언어표현기법 속에는 자신에 대한 ‘동조(同調)’와 ‘이해’, 그리고 ‘위로’ 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② 음성적 표현

대상자들은 회고를 통해 연상된 음악으로 노래 부르거나 감상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목소리’를 통해 내면을 표현할 수 있었다. 회고에 대한 느낌과 감정 및 생각을 그에 연상되는 노래로 표현하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회상을 떠올리기도 하였고, 회고로 연상되는 음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표현하기도 하였다. 표현된 음악의 장르는 민요, 전통가요, Old pop, 7080가요, 클래식, 동요, 드라마 O.S.T(Original Sound Track), 창작판소리 및 전통판소리 등 다양하였으며, 음성적 표현이 집중된 음악자서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 A는 <표 6>과 같고, 대상자 B는 <표 7>과 같다.

<표 6> 대상자 A의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음악자서전 활동)

회기	주제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A]	음악활동
1	고향	《절레꽃》	노래 부르기 및 회상하기
2	출생, 부모님	《홍시》	노래 부르기 및 회상하기
3	놀이, 형제자매	《꼬까신》, 《금강산》, 《반달》,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노래 부르기 및 회상하기
4	학교, 친구	《님과 함께》, 《여고시절》	노래 부르기 및 감상하기, 노래 회상하기
5	사랑, 결혼	《춘향가》 中 <사랑가>	노래 부르기 및 감상, 노래 만들기
6	가족, 출산, 자녀양육	《시집살이 노래》	노래 부르기 및 감상, 노래 만들기
7	자녀의 결혼	《노총각 거시기가》	노래 감상하기 및 가사토의하기
8	행복	《새내기 첫사랑》, 《태평가》	노래 부르기 및 노래 만들기
9	슬픔	《Merci Cherie》, 《Sunny》	음악 감상하기 및 회상하기
10	그리움	《돌아와요 부산항에》, 《고추잠자리》, 《단발머리》	노래 부르기 및 감상
11	소중함	《슈퍼맥 씨름대회 출전기》	노래 부르기 및 감상하기, 노래 회상하기, 노래 만들기
12	나의 인생여정과 앞으로의 삶	《나의 인생가 (작사&작창)》, 《장녹수》	노래 부르기 및 감상하기, 노래 회상하기, 노래 만들기

<표 7> 대상자 B의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음악자서전 활동)

회기	주제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B]	음악활동
1	고향	《노들강변》, 《나나쁘노코》, 《사쿠라》,	노래 부르기 및 회상하기
2	출생, 부모님	《사발가》	노래 부르기 및 회상하기
3	놀이, 형제자매	《최영장군》, 《봄 나들이》	노래 부르기 및 회상하기
4	학교, 친구	《고향의 봄》, 《친구여》	노래 부르기 및 회상하기
5	사랑, 결혼	《춘향가》 中 <사랑가>	노래 부르기 및 감상하기, 노래 만들기, 노래 회상하기
6	가족, 출산, 자녀양육,	《시집살이 노래》	노래 부르기 및 감상하기, 노래 만들기, 노래 회상하기
7	자녀의 결혼	《노총각 거시기가》	노래 감상 및 회상하기, 노래 가사토의하기
8	행복	《새내기 첫사랑》	노래 감상 및 노래 만들기
9	슬픔	《심청가》, 《허공》	노래 감상 및 회상하기
10	그리움	《고향의 봄》	노래 부르기 및 회상하기
11	소중함	《슈퍼맥 씨름대회 출전기》	노래 부르기 및 감상하기, 노래 만들기
12	나의 인생여정과 앞으로의 삶	《나의 인생가》(작사&작창)	노래 부르기 및 감상하기, 노래 회상하기, 노래 만들기

③ 신체적 표현

대상자들은 회고 및 음악자서전 활동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되고 다양한 모습의 비언어적 신체 표현을 나타냈다. 회고를 통해 느끼고 생각하는 여러 감정들을 표정과 시선, 손짓, 숨소리, 호흡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회고한 이야기의 내용이나 정서 및 감정에 따라 신체 표현은 수시로 변화되었다. 이는 음악자서전활동에서도 고스란히 표현되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 비언어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손짓 하나를 할 때도 회고를 할 때에는 자유롭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표현하였다면, 음악자서전이 진행될 때는 음악의 박자나 리듬, 분위기 등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화하며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움직였다. 특히, 회고만 진행될 때보다 음악자서전 활동이 회고와 함께 진행될 때 비언어적인 신체적 표현이 더욱 역동적으로 일어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특성과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 못지않게 신체적 표현도 아주 중요하며, 인간의 감정과 느낌은 언어 외에도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 노인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인생회고와 자기표현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창작판소리가 실제 음악치료현장에서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중재도구로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시사하며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명의 뇌졸중 노인 대상자들과 함께 총 12회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총 319개의 의미단위와 22개의 하위 구성요소, 8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한 경험의 의미들과 자기표현 경험의 의미들을 각각 발견 할 수 있었으며,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한 경험은 아래의 다섯 가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의성어 및 의태어와 감탄사를 통한 경험이다(‘아니리’, ‘소리’).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 중 ‘아니리(사실)’와 ‘소리(노래)’에 해당하는 경험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더욱 사실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내기 위해 회고를 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의성어 및 의태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인 만큼 음악자서전에서 노래 만들기 활동을 할 때도 ‘의성어와 의태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음악 및 회고에 대한 느낌 및 탄성을 나타낼 때는 ‘감탄사’를 통해 경험하기도 하였다.

둘째, 묘사(描寫)또는 모사(模寫)를 통한 경험이다(‘아니리’).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 중 ‘아니리(사실)’에 해당하는 경험으로서, ‘묘사(描寫)’는 장면 및 인물묘사와 상황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인 만큼 대상

자들은 회고를 하는 과정 동안 과거의 특정 시점에 대한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활발하게 ‘묘사(描寫)’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회고된 특정 기억이나 사건 및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말투 및 목소리를 ‘모사(模寫)’하며 경험하기도 하였다.

셋째, 이야기와 음악을 통한 경험이다(‘아니리’, ‘소리’).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 중 ‘아니리(사설)’와 ‘소리(노래)’에 해당하는 경험이며, 대상자들은 창작판소리의 ‘아니리(사설)’와 ‘소리(노래)’가 그 자체로서 담고 있는 친숙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해 동질감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과 창작판소리의 이야기를 동일시하여 자연스럽게 회고로의 접근이 촉진될 수 있었다.

넷째, ‘추임새’를 통한 경험이다.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 중 ‘추임새’에 해당하는 경험이며, 대상자들은 ‘아니리(사설)’와 ‘소리(노래)’의 가사를 통해 전달받은 감정이나 느낌, 생각 등에 대해 공감이 되고 흥미로움을 느꼈을 때 가장 많이 ‘추임새’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임새’가 형식적으로 경험되기보다 내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도 즉흥적으로 유발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신체동작을 통한 경험이다(‘발림’). 창작판소리의 구성요소 중 ‘발림(몸짓)’에 해당하는 경험이며, 대상자들은 회고를 통한 관련 기억 및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또는, 흥겨움 및 여러 감정을 표현하려 할 때 주로 ‘손짓’을 많이 사용 하였다. 따라서 ‘묘사(描寫)’와 ‘손짓 및 몸짓’은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고한 기억 또는 연상된 음악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표정 및 시선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음악자서전을 통해 ‘인생회고’와 ‘소리(노래)’가 함께 진행될 때 더욱 역동적으로 신체동작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표현을 통한 경험은 세 가지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첫째, 언어적 표현이다. 회고를 통해 발견한 과거의 사실과 경험을 이야기하며 재인식(再認識)할 수 있었고, 회고를 통해 연관되는 내면의

감정이나 느낌 및 생각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이며 간결하고 자발적이며 자유롭고 때론, 명확하며 무의식적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다양한 언어표현기법을 통해 나타난 자기표현은 자신에 대한 ‘동조(同調)’와 ‘이해’, 그리고 ‘위로’ 받고 싶어 하는 내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부가의문문(附加疑問文)’, ‘반문(反問)’, ‘설의법(設疑法)’, ‘인용법(引用法)’, ‘가정법(假定法)’ 등을 통해 나타난 언어적 표현은 인생회고를 경험할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언어표현이 단지 목소리를 내어 말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양한 기법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내면과 언어표현이 긴밀한 연관관계임을 통해 다양한 언어표현 기법들을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음성적 표현이다. 대상자들이 회고를 통해 떠올린 경험과 기억 및 정서들은 노래 부르거나 감상하고 ‘추임새’를 넣는 등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될 수 있었다. 음성적인 표현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감정이입과 몰입을 촉진하기도 하며 회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래를 부르다가 회고 속 기억 및 감정을 경험하거나, 회고된 내용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등의 경험을 통해 회고와 음악은 서로 상호유도(相互誘導)적인 관계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과거를 자극하고 유도하며 내면을 표현하는 것에는 노래나 음악 및 목소리 등의 음성적인 요소들이 해당될 수 있다.

셋째, 신체적 표현이다. 대상자들은 회고 및 음악자서전 활동 중, 각자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감정 및 의도에 따라 ‘몸짓’, ‘손짓’, ‘표정’ 그리고 ‘시선’ 등의 비언어적 신체표현을 통해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신체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서, ‘언어적 설명을 보충할 때’, ‘감정을 표현할 때’, ‘의사를 표현할 때’였다. 신체적 표현 안에는 대상자의 의도나 생각, 느낌, 감정 등의 다양한 의미가 수반되었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감정에 대해서도 대상자마다 표현되는 신체적 모습은 개

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표현을 하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개별성(個別性)이 있으며, 여기에는 언어적, 음성적, 신체적 표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상자들은 의도나 생각 및 느낌 등의 다양한 의미를 언어적, 음성적, 신체적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타냈다. 이는 인간의 감정과 느낌이 언어적, 음성적, 신체적으로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현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창작관소리의 구성요소를 통한 경험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언어와 음성, 신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소를 짓거나 손짓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추기도 하며,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가사를 보며 읊기도 한다. 이처럼 언어와 음성, 신체는 상호 교류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회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성 있고 친근감 있으며 동질감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소재로 ‘창작관소리’를 활용한 것이며, ‘창작관소리’를 활용하여 ‘음악자서전’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복합적으로 언어와 음성, 신체의 활발한 표현이 일어났다. 이것은 ‘언어’와 ‘음악’, 그리고 ‘신체’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구성한 것이 ‘관소리’ 혹은 ‘창작관소리’이기 때문이며, 창작관소리가 소재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시대성을 반영한 우리들의 실제 삶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창작관소리’가 아니어도 그것이 주제가 되었든, 이야기가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간에 대상자의 과거회상을 촉진하려면, 대상자의 과거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과거의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그것들이 함께 맞물릴 때 활발한 연상 작용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인물 및 사물의 ‘모사(模寫)’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

다. 실제로 대상자 A와 B는 모두 인물에 대해 ‘모사(模寫)’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모사(模寫)’ 후 대상자 A와 B는 크게 웃음을 보이거나 미소를 보이는 등 모두 긍정적인 표현을 나타냈다. 따라서 누군가와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는 것은, 재미적인 요소의 의미 외에도 희화화(戲畫化)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흉내를 내는 대상자를 내면속에서 떠오르게 하여 내면을 표출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언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느낀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는 2명의 뇌졸중 노인의 경험에 대한 결과로서 전체의 뇌졸중 노인이나 그 외의 다양한 대상군들의 경험으로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명의 대상자들은 자기표현의 정도에서 개별성(個別性)의 차이가 있었고, 같은 주제제시를 위해 동일하게 사용된 창작판소리에 대해서도 개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모습들은 각기 달랐다. 이는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창작판소리가 다양한 주제를 접목하고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대상군들에게 적용하여 창작판소리를 음악치료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활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창작판소리를 치료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가창기법 및 북 연주, 창작판소리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看過)할 수 없다. 전문가적인 만큼의 기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노래마다 고유 창법이 있고 음악마다 어울리는 연주법이 있는 만큼, 치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과 기법을 갖춘 후 활용하는 등 치료사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치료적으로 접근 시, 창작판소리의 요소와 형식을 반드시 모두 활용하지 않고 요소들의 부분적인

도입도 가능하다. ‘아니리(사설)’나 ‘추임새’, ‘발림(몸짓)’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소리(노래)’부분을 창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익숙한 음악으로 편곡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에게 주제로 제시한 창작판소리 중, 《노충각 거시기가》에서 가요 <열아홉 순정>을 삽입하여 활용하였고, 마지막 회기인 《나의 인생가》에서도 대상자와 함께 작사 및 작창하며 ‘아니리(사설)’부분은 대상자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소리(노래)’부분은 대상자가 음악자서전을 통해 회고한 노래들을 삽입하여 노래 불렀다.

이상 본 연구는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을 통해 뇌졸중 노인들의 인생회고 및 자기표현의 경험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을 질적 연구로 기술하여 본질을 파악하고 의미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와 가치를 가진다. 아울러 창작판소리의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창작판소리와 음악자서전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 치료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갑원 (1993). 자극성, 진정성 음악이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7(1), 1-14.
- 고명한 (2011). 음악치료사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1), 17-44.
- 고미혜 (2013). 뇌졸중 후 우울과 감정조절장애: TPH2 다형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경희 (2010). 노래자서전 활동을 통한 말기 암환자의 죽음수용에 대한 질적 연구: 관조(觀照)와 희망의 노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동연, 최영주 (2003). 만다라 미술치료가 시설수용 뇌졸중 노인의 우울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9(1), 79-102.
- 김명자 (2014). 전통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한 재창작 방안 연구: <춘향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연 (2007). 창작판소리 발전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24, 37-76.
- 김유림 (2009). 말기암 환자의 '희로애락(喜怒哀樂)' 인생회고를 위한 노래심리치료.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유석 (2010). 판소리 즉흥성에 대한 음악적 검토-이동백의 유성기음반 중 <박석티> 대목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44, 41-69.
- 김진호, 한태륜 (1995). **재활의학**. 서울: 삼화출판사.
- 김진희 (2014).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표현 촉진경험에 대한

- 현상학적 연구: 집단미술치료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 김천사 (2011). 판소리 창작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관한 연구: 성음을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8(1), 43-60.
- 김하얀 (2015). **이야기를 활용한 회고적 집단음악치료가 시설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현주 (2008). 뇌졸중 노인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5(4), 741-760.
- 김혜경, 이광호 (2014).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이중 노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23-51
- 명미엽 (2007). **인생회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뇌졸중 노인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문지영 (2014). 음악치료 전공 학생이 지각하는 음악심리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6(2), 45-68.
- 박정희, 이드보라 (2013). 독거노인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트로트와 민요를 이용한 노래회상음악치료의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61, 319-338.
- 백대응 (2006). **정통음악의 흐름과 역동성.** 서울: 보고서
- 서미경 (2010). **중고령여성의 취업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우종 (2007). **창작 판소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양정아 (2006). 판소리 고수의 추임새에 대한 연구: 유성준 바디 수궁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음악학**, (7), 79-103.
- 양희복 (2004). **여성 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집단지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회상 요법 적용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교.
- 유희경 (2006). 판소리 너름새의 구성요소와 표현기법: 동초제 <춘향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윤정현 (2003). 뇌졸중 노인의 불안과 대인관계에 자기표출훈련이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윤현숙, 이강, 차민호, 권종희 (2011).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구조적 인생회고(Structured Life Review)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53, 133-158.
- 이경열 (2014). 중풍?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다양한 이름의 질환. We & You 당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1, 8-9.
- 이문정 (200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위한 노래자서전 활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민성 (2005). 판소리의 치유성에 관한 연구: 아방가르드연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상원 (1999). 판소리 음악의 의성·의태어 연구: '춘향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성천 (1997). 한국·한국인·한국음악: 한국 전통음악에 내재한 의식.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이수연 (2012). 비국악인의 판소리 감상과정에서의 경험적 요소.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9(2), 19-34.
- 이 숙 (2006).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내 삶의 여정 : 종말기 환자의 음악자서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8(2), 22-44.
- 이옥선 (2014). 알코올 중독 여성의 관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유진 (2006). 판소리 삼입민요의 존재양상과 차용경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은정 (2011). 음악자서전 활동이 척수손상환자들의 자가지각 및 자기수용

-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1), 67-84.
- 이정원 (2002). 판소리의 공간 묘사 대목 연구: 이야기 공간의 정체와 의미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3, 295-317.
- 이현주 (2005). 노인부부가구에서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의 수발 경험에 관한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덕희, 이경은, 윤재섭 (2013). 노인을 위한 구조화된 인생회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행정학회**, 23(1), 1-21.
- 장지애, 김영신 (2013). 인생회고를 위한 음악자서전 활동이 편마비 환자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153-167.
- 장태경 (2006). 취학전 아동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인간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장효지 (2013). 창작 판소리를 활용한 단계별 교수·학습법 연구: 만 5세 유아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정혜정 (2008). 또랑광대 창작판소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조무정 (2015). 초등학교 과학 영재학생의 집단 창의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조희영 (2004). 만성질환노인환자의 우울경감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지제근 (2004). 알기 쉬운 의학용어 풀이집 (제3판). 서울: 고려의학.
- 최영주 (2001). 만다라 미술치료가 뇌졸중 노인의 우울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홍성하 (2011). 간호학에서의 '돌봄'(caring)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50, 213-241.
- Adler, R. B. (1979). 인간관계와 자기표현(*Confidence in communication*).

- 김인자 역 (1991).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Bruscia, K. E. (1998).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최병철, 김영신 공역 (2006). 서울: 학지사.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eeken, A. (1996).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死とどう向き合うか). 오진탁 역 (2002). 서울: 궁리.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Gaston, T. E. (1951). *Dynamic music factors in mood change*. Music Educational Journal. 37. 42-44.
- Giorgi, A. P.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A 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New York, NY: Harper & Row.
- Giorgi, A. P. (1985).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공역 (2004). 서울: 현문사.
- Havighurst R., & Glasser R. (1972). An exploratory study of reminiscence. *Journal of Gerontology*, 27(2), 245-253.
- Lewinsohn, P. M., Biglan, A., & Zeiss, A. M. (1976). Behavioral treatment of depression. In D. O. Davidson (Ed), *The behavioral management of anxiety, depression, and pain* (pp. 91-146). New York, NY: Burner/Mazel.
- Spiegelberg, H. (1975). *Doing Phenomenology*.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olpe, J. (1958). *Psychotherapy by reciprocal inhib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Elderly Cerebral Apoplexy Patient's Life Review and Self-expression through Music-Autobiography Program Using Creative Pansori

Kim, Min-Ji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usic-Autobiography Program Using Creative Pansori' affects the condition of elderly cerebral apoplexy patient's Life Review and Self-expression.

The Music-Autobiography program using Creative Pansori was conducted for two subjects at a rehabilitation hospital in Seoul twice a week, for over 6 weeks (a total of 12 sessions lasting 40 minutes), from March 23, 2015 to April 30, 2015.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Giorgi was adopt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 revealed 319 meaningful units, 8 components and 22 sub-components. The 8 components were experienced through ①the fact

and transmit meaning in the recollection, ②the thinking and transmit of feeling, ③the onomatopoeia, mimetic word and exclamation, ④the description and imitation, ⑤the music, ⑥the 'Chuim-sae', ⑦the body movements, ⑧the gaze and facial express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experience through the components of creative pansori can be analyzed in five meaningful experiences: 'through onomatopoeia, mimetic word, exclamation ('Aniri' and 'Sori')', the description and imitation ('Aniri')', the story and music ('Aniri' and 'Sori'), 'Chuim-sae', and 'through the body movements ('Ballim')'.

Finally, the experience through the self-expression revealed three meaningful experiences. The 3 categories were 'linguistic expression', 'musical expression' and 'physical expression'.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71
<부록 2> 활용된 창작관소리와 그 외의 곡목	72
<부록 3> 대상자 A의 음악자서전 활동 회기별 선곡 정보	73
<부록 4> 대상자 B의 음악자서전 활동 회기별 선곡 정보	74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노인의 인생회고 및 자기 표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자 : 김민지

지도교수 : 백혜선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국악의 한 장르인 창작판소리를 음악자서전이라는 형태와 함께 활용하여 뇌졸중 노인에게 제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음악자서전을 통한 인생회고를 ‘아니리(사설)’와 ‘소리(노래)’, ‘발림(신체동작)’ 등의 창작판소리 구성요소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자기표현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자는 회당 40분씩 진행되는 음악치료세션에 주 2회씩, 6주 동안 총 12회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거절을 표할 수 있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내용은 연구의 정확성과 경험의 생생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녹화가 될 것입니다. 최종 논문에서는 녹화된 내용이 익명으로 인용 될 것이며, 이 연구는 뇌졸중 노인의 자기표현과 인생회고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하며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녹화자료는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후 모든 개인정보 및 자료들은 모두 영구삭제로 폐기처분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연구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의 사실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15 년 3 월 일

참 여 자 : _____(印)

소 속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연구자 : 김민지 _____(印)

<부록 2> 활용된 창작판소리와 그 외의 곡목

순서	제목	작자	작창시기	음악형태
01	원주내력	정대호	1994	창작판소리
02	회심곡中 '부모님은혜'	휴정(休靜)	조선시대	불교가요 (佛敎歌謠)
03	홍보가	미상	조선시대	전통판소리
04	사철가(이산 저산)	조상현	1960년대	단가(短歌)
05	춘향가	미상	조선시대	전통판소리
06	시집살이노래	미상	2010	구전민요
07	노총각 거시기가	남상일	2004	창작판소리
08	새내기 첫사랑	이효녕	2013	창작판소리
09	아빠의 별급	이덕인	2003	창작판소리
10	십청가	미상	조선시대	전통판소리
11	슈퍼택 씨름대회 출전기	김명자	2001	창작판소리

<부록 3> 대상자 A의 음악자서전 활동 회기별 선곡 정보

대상자	회기	음악
A	01	-절레꽃[백난아, 1941]
	02	-홍시[나훈아, 2005]
	03	-꼬까신[동요, 최계락 작사·손대업 작곡] -금강산[동요, 강소천 작사·나운영 작곡]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전래놀이동요] -반달[동요, 윤극영 작사·작곡]
	04	-님과 함께[나훈아, 1972] -여고시절[이수미, 1972]
	05	-창작판소리 활용
	06	-창작판소리 활용
	07	-창작판소리 활용
	08	-태평가[경기민요]
	09	-Merci Cherie[Franck Pourcel, 1966] -Sunny[Boney M, 1976]
	10	-돌아와요 부산항에[조용필, 1979] -고추잠자리[조용필, 1981] -단발머리[조용필, 1979]
	11	-창작판소리 활용
	12	-장녹수[전미경, 1995]

<부록 4> 대상자 B의 음악자서전 활동 주제별 선곡 정보

대상자	회기	음악
B	01	-노들강변[경기민요] -나나쯔노코(七つの子) [일본동요, 노구치우쵸 작사·모토오리 나가요 작곡] -사쿠라(さくら)[일본동요]
	02	-사발가[경기민요]
	03	-최영장군[전래동요] -봄나들이[동요, 윤석중 작사·권태호 작곡]
	04	-고향의 봄[동요, 이원수작사·홍난파작곡] -친구여[조용필, 1983]
	05	-창작판소리 활용
	06	-창작판소리 활용
	07	-창작판소리 활용
	08	-창작판소리 활용
	09	-허공[조용필, 1985]
	10	-고향의 봄[동요, 이원수작사·홍난파작곡]
	11	-창작판소리 활용
	12	-창작판소리 활용